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1. 12 | No.147

차 례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2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16
2. 고용	18
3. 물가	19
4. 금융·외환	20
5. 수출입	22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3
(1) 총괄	23
(2) 자동차	26
(3) 조선	28
(4) 일반기계	29
(5) 철강	31
(6) 정유	32
(7) 석유화학	33

(8) 섬유	35
(9) 가전	36
(10) 무선통신기기	37
(11) 반도체	39
(12) 디스플레이	40
2. 서비스산업	41
(1) 생산	41
(2) 고용	44
(3) 서비스수지	46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9
(1) 생산	49
(2) 고용	50
(3) 수출	52
2. 지역별 동향	53
(1) 수도권	53
(2) 충청권	55
(3) 호남권	57
(4) 대경권	59
(5) 동남권	60
(6) 강원·제주권	62

V. 산업 포커스

2022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64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1. 12 | No.147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215
인쇄처	(주)프리비

I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10월 중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확대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체감지표들은 여전히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상존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신규 수주의 대폭 감소 여파로 하락한 반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구성지표들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5개월 만에 상승
- 일본은 9월 중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유로존에서도 생산과 소비가 소폭이나마 동반 감소하면서 부진
 - 일본은 3분기 중 소비(-1.3%)와 투자(-2.3%) 등 내수지표가 감소하면서 전기비 성장률도 마이너스(-0.9%)를 기록한 반면, 유로존은 독일(1.7%), 프랑스(3.0%), 이탈리아(2.6%) 등 주요국들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2%대 유지
- 중국은 10월 중 생산과 소비 증가율이 약간 높아진 반면, 수출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1.5%)
 - 최근 내·외수 관련 실물지표들의 둔화세와 물가지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통화당국 관계자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우려를 제기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미국	실질GDP ¹⁾	2.3	-3.4	6.3	6.7	2.0				
	산업생산	-0.8	-7.2	1.0	1.6	1.0	0.8	0.0	-1.3	1.6
	소매판매	3.3	0.3	8.0	6.5	-0.5	-1.6	1.2	0.8	1.7
	무역수지 ²⁾	-576.3	-676.7	-206.1	-207.1	-225.0	-70.3	-73.2	-81.4	-67.1
일본	실질GDP	-0.2	-4.5	-0.7	0.5	-0.9				
	광공업생산	-2.7	-10.6	2.8	1.2	-3.7	-1.5	-3.6	-5.4	-
	소매판매	0.1	-3.5	0.4	-2.1	1.2	1.0	-4.0	2.8	-
	무역수지 ²⁾	-1,668	563	542	434	-831	436	-643	-624	-
유로	실질GDP	1.4	-6.5	-0.2	2.2	2.2				
	산업생산	-1.4	-8.5	1.2	0.1	-0.2	1.3	-1.7	-0.2	-
	소매판매	2.4	-1.0	-1.3	3.9	0.9	-2.2	1.0	-0.3	-
	무역수지 ²⁾	222.7	234.9	69.1	37.3	29.0	13.2	9.7	6.1	-
중국 ³⁾	실질GDP	6.0	2.3	18.3	7.9	4.9				
	산업생산	5.7	2.8	24.6	9.0	4.9	6.4	5.3	3.1	3.5
	소매판매	8.0	-3.9	34.0	14.1	5.1	8.5	2.5	4.4	4.9
	수출(달러화)	0.5	3.6	48.7	30.3	24.4	19.3	25.6	28.1	27.1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및 유가 상승 전환

- 달러화는 11월 중 미국의 고용 호조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데다 파월 의장의 재지명으로 통화긴축의 가속 우려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 이슈가 부각되면서 약세 전환
 - 미 달러화지수는 11월 중 2.2% 상승, 특히 유로화 대비 기준 1.9%나 상승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1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일
엔/달러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95	113.17	113.42
달러/유로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558	1.1338	1.1318
미 국채 (10년 만기)	1.74	1.63	1.59	1.47	1.22	1.31	1.49	1.55	1.44	1.48
WTI유	59.2	63.6	66.3	73.5	74.0	68.5	75.0	83.6	66.2	71.7
두바이유	62.4	64.5	66.6	73.0	73.3	69.4	75.9	81.9	71.0	72.7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유가는 11월에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및 미 달러화 강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주요국들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과 오미크론 바이러스 우려 등의 여파로 큰 폭 하락한 이후 12월 들어서는 반등 전환
 - WTI유와 두바이유는 11월 중 20.8%와 13.3% 하락, 12월 초 8.3%와 2.4% 상승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10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3.5%로 9월에 이어 경기 둔화 우려

- 10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5%로 7월 6.4%, 8월 5.3%에서 현저히 낮아진 9월 3.1%에 이어 성장세에서 이탈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0%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5%
- 9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국유기업과 주식제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민영기업은 낮은 편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8월	9월	10월
공업 전체		5.7	-1.3	2.8	15.9	5.3	3.1	3.5
섬유	방직	-5.9	-25.9	-15.7	11.8	4.0	-1.2	0.3
	화학섬유	12.5	-1.0	3.4	17.1	9.2	-2.0	-4.9
화학	에틸렌	9.4	-0.8	4.9	26.6	15.3	9.3	4.0
	플라스틱원료	9.3	2.8	7.0	12.3	0.4	-4.7	-3.9
	플라스틱제품	3.9	-9.6	-6.4	18.2	1.5	-4.1	-1.1
철강	선철	5.3	2.2	4.3	4.0	-11.1	-16.1	-19.4
	조강	8.3	1.4	5.2	11.8	-13.2	-21.2	-23.3
	강재	9.8	2.7	7.7	13.9	-10.1	-14.8	-14.9
비철금속		3.5	2.9	5.5	11.0	0.4	-1.6	-2.6
기계	금속절삭기계	-18.8	-7.7	5.9	45.6	23.1	2.1	4.8
	소형 트랙터	3.0	-29.7	-47.2	27.6	0	-23.5	-6.7
	대기오염방지설비	-13.7	-22.5	-21.1	25.6	-8.5	0.7	11.5
	발전설비	-15.0	16.7	30.3	17.4	25.2	-7.9	-5.7
자동차		-8.0	-16.5	-1.4	26.4	-19.1	-13.7	-8.3
조선		9.3	-10.4	-8.2	19.1	3.1	-27.3	41.1
전자	세탁기	9.8	-7.2	3.9	33.5	-10.0	-12.2	-8.7
	냉장고	8.1	-6.9	8.4	18.8	-19.0	-18.5	-13.5
	에어컨	6.5	-16.4	-8.3	21.0	4.3	-6.9	6.0
	컬러TV	-2.9	-2.5	4.7	5.6	-19.3	-14.6	-5.5
	컴퓨터	6.9	5.2	16.0	40.6	9.7	8.3	-2.1
	반도체	7.2	16.4	16.2	48.1	39.4	21.4	22.2
	휴대폰	-6.0	-13.3	-9.5	21.1	-7.2	-5.2	-0.9
서비스	화물운수	5.5	-7.8	-0.5	24.6	5.2	2.0	2.7
	여객운수	-1.9	-54.8	-45.1	11.1	-44.1	-30.2	-32.2
	우편 ³⁾	31.5	22.4	29.7	34.4	21.9	17.7	18.7
	통신 ³⁾	62.9	28.3	28.1	28.3	25.5	31.6	28.3
	소매업	7.9	-8.7	-2.3	20.6	3.3	4.5	5.2
	음식숙박업	9.4	-32.8	-16.6	48.6	-4.5	3.1	2.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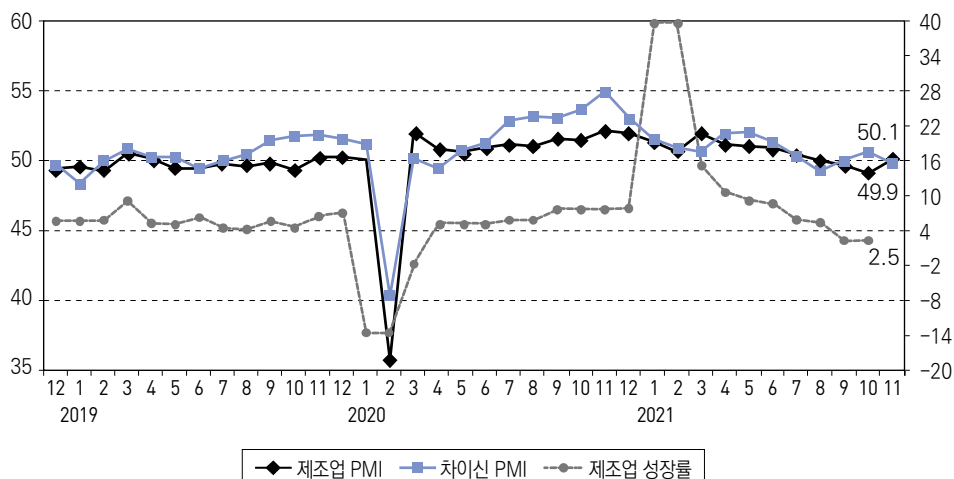
- 국유기업은 전년동월비 5.2%로 9월보다 개선된 반면, 민영기업은 2.4%로 9월보다도 성장세가 둔화하였고, 주식제기업은 4.2% 수준
- 10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9월에 이어 철강과 자동차의 생산이 전년동월비 감소하였으며, 반도체와 에어컨을 제외한 전자업종 생산량이 감소
 - 섬유업종은 화학섬유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년 대비 감소(-4.9%)
 - 화학업종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에틸렌이 4.0%로 증가한 반면, 플라스틱원료와 플라스틱제품은 각각 3.9% 및 1.1% 감소
 - 철강업종은 선철(-19.4%), 조강(-23.3%), 강재(-14.9%) 등 모든 품목에서 9월보다도 감소 폭이 컸으며,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생산량 축소가 반영
 - 비철금속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생산량 감소(-2.6%)
 - 기계업종은 금속절삭기계(4.8%)와 대기오염방지설비(11.5%)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소형 트랙터(-6.7%), 발전설비(-5.7%)는 크게 감소
 - 자동차는 반도체부품 등의 부족으로 8.3%의 큰 폭 감소하였으며 하반기 들어 감소세 지속
 - 조선업은 9월과는 달리 10월에 41.1%의 큰 폭 증가로 반전
 - 전자업종에서 반도체(22.2%)와 에어컨(6.0%)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세탁기(-8.7%), 냉장고(-13.5%), 컬러TV(-5.5%), 휴대폰(-0.9%) 등 생활가전 전반에서 감소세 지속
- 9월에 이어 10월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여객 운수에서는 큰 폭의 감소 지속
 - 화물운수(2.7%)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여객운수(-32.2%)는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 우편과 통신은 각각 18.7%, 28.3%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소매업은 5.2% 증가하고, 음식숙박업은 2.0% 증가

□ 11월 제조업 관방구매관리자지수 50.1로 경기 전망 불투명

- 11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50.1로 임계치 수준으로 회복

-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52.0으로 회복
 -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49.4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47.7로 여전히 임계치 하회
 - 종업원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48.9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48.2
- 제조업 PMI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임계치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형기업과 소형기업은 임계치 이하로 경기 둔화 지속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50.2로 임계치 이상 유지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한 51.2로 임계치 이하 지속
 - 소형기업은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48.5로 기준치 이하 지속
 - 2021년 11월 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49.9로 임계치를 하회
 - 7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생산은 11월 소폭 증가하였으나 가격 상승과 수요 부진은 여전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신규 업무가 9월과 10월에 증가하였다가 11월에 소폭 감소하였고, 팬데믹과 제품가격의 상승 등의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신규 주문도 소폭 감소
- 전반적으로 4분기 들어 수요가 다소 회복 중이나, 기업들은 여전히 관리자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태
- 기업들은 여전히 재고가 부족하고 물류는 지연되고 있지만 3월 이후 지연되는 건수는 가장 낮은 수준
- 원자재가격 상승과 운송 비용 증가 등으로 11월은 투입재 비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나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중국의 경쟁력우위 제조업체의 향후 1년에 대한 생산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

(2) 미국

□ 10월 제조업 생산, 4.7% 증가

- 10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
 -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생산 증가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4.7% 증가
 - 통신기기는 17.4% 증가로 주요 업종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
 - 항공우주, 정유 및 1차 금속도 각각 13.1%, 12.9% 및 10.3%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 증가를 견인
 - 그 외에도 반도체·전자부품(9.6%), 화학(5.9%), 기계(5.4%), 금속제품(4.9%) 등이 제조업 평균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
- 반면 자동차·부품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관찰
 - 자동차·부품은 3.9% 감소하며 주요 업종 중 유일하게 감소 기록
 - 자동차·부품은 7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3분기 생산은 전년동기비 10.5% 감소
 - 다만 10월 감소폭은 지난 9월(-13.9%)에 비해 크게 개선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제조업 전체	-6.4	-2.4	-0.1	17.6	6.2	5.7	4.9	4.7
식품	-2.6	-1.5	-0.5	7.3	1.3	0.6	1.0	0.5
제지	-4.3	-3.6	-5.8	3.8	4.9	5.6	3.6	0.7
정유	-13.0	-11.6	-7.5	23.7	12.0	12.3	10.5	12.9
화학	-2.6	0.0	-3.4	10.5	7.7	8.0	5.6	5.9
플라스틱·고무	-7.6	-2.0	-0.8	18.3	5.0	3.6	4.2	2.9
1차 금속	-13.4	-6.3	-3.5	33.1	17.9	17.8	12.3	10.3
금속제품	-7.6	-5.8	-3.5	9.4	5.8	6.0	4.4	4.9
기계	-6.1	-0.4	3.3	23.1	10.8	9.2	9.1	5.4
컴퓨터·주변기기	14.1	19.7	14.2	20.9	7.4	8.1	4.4	3.1
통신기기	12.4	13.0	9.9	11.3	18.2	18.8	18.9	17.4
반도체·전자부품	3.7	5.8	10.6	16.1	10.7	11.2	9.6	9.6
자동차·부품	-15.7	2.4	4.8	85.9	-10.5	-8.6	-13.9	-3.9
항공우주	-20.1	-17.2	8.5	37.5	17.7	16.3	14.2	13.1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3) 일본

□ 10월 제조업 생산, 4.7% 감소

- 10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에 이어 감소 지속
 - 제조업 생산은 전월 실적(-2.3%)보다 악화된 전년동월비 4.7% 감소 지속
- 수송기계, 플라스틱제품, 전기·정보통신기기 등의 생산 저조가 전체 제조업 생산 감소를 야기
 - 수송기계는 전년동월비 33.2%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하며 전월(-38.0%)에 이어 가장 크게 부진한 업종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제조업 전체	-10.3	-3.5	-1.1	19.9	5.7	8.8	-2.3	-4.7
강철·비철금속	-14.6	-4.3	-0.4	34.4	19.9	20.4	10.5	1.9
금속제품	-11.5	-6.0	-0.6	15.9	5.0	8.5	-0.8	-6.2
생산기계	-10.3	-1.3	11.3	25.6	32.8	41.5	27.4	25.3
일반용·업무용 기계	-12.1	-3.5	-1.2	22.9	19.2	21.7	18.2	2.5
전자부품·기기	1.4	5.2	9.7	23.8	17.2	20.2	8.9	9.3
전기·정보통신기기	-9.7	-0.6	5.1	21.8	5.8	6.9	-0.4	-7.2
수송기계	-17.4	-1.5	-7.1	54.5	-13.2	-7.0	-38.0	-33.2
요업·토석제품	-8.5	-4.7	-3.9	13.4	8.7	10.6	4.4	-2.5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12.5	-10.7	-5.4	9.3	6.8	5.9	7.1	3.6
석탄·석유제품	-15.5	-12.6	-11.4	0.9	7.6	8.7	10.9	8.8
플라스틱제품	-6.3	-1.0	-0.7	14.8	1.7	5.9	-7.1	-8.9
펄프·종이·가공품	-9.7	-5.8	-5.0	9.2	7.5	10.4	2.7	1.5
식품·담배	-3.0	-3.6	-2.9	0.7	-2.2	-0.5	-2.8	-
기타 제조업	-13.2	-8.7	-5.3	14.9	10.3	11.9	6.8	1.4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플라스틱제품의 생산도 전년동월비 8.9% 감소를 기록하며 전월(-7.1%) 부진을 지속
- 전기·정보통신기기와 금속제품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생산이 감소, 각각 7.2%, 6.2%의 감소를 기록
- 식품·담배도 7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 지속
- 생산기계, 전자부품·기기 및 석탄·석유제품은 호조세 지속
 - 생산기계는 전년동월비 25.3% 증가를 기록, 2월 이후 큰 폭의 생산 증가를 지속하며 제조업 생산을 견인
 - 전자부품·기기와 석탄·석유제품도 각각 9.3% 및 8.8%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호조

(4) 유로존¹⁾

□ 10월 제조업 생산, 3.9% 증가

- 10월 제조업 생산은 기계, 정유 및 조선 등의 확대로 인해 전년동월비 3.9% 증가
 - 기계의 경우,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20.0%),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12.1%)을 비롯한 전 부문에서 확대되며 10.4% 증가
 - 정유는 코크스 오븐과 정유제품이 각각 10.2% 및 8.6% 증가하며 9.2% 증가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제조업 전체	-9.1	3.6	24.1	6.6	5.7	5.6	3.9
식음료	-2.4	-1.6	7.4	4.5	4.1	4.2	3.8
섬유	-12.8	2.3	33.7	5.9	-1.2	4.0	1.4
정유	-10.1	-8.4	6.8	7.1	7.0	9.6	9.2
화학	-2.5	2.5	12.7	5.7	6.1	4.4	1.0
고무·플라스틱	-8.6	5.5	30.4	3.2	1.7	0.3	-2.0
1차 금속	-13.1	3.9	35.5	9.3	7.2	4.1	2.1
조립금속	-12.0	6.2	33.6	8.0	7.2	4.8	1.8
기계	-12.7	4.1	25.1	13.1	12.4	11.5	10.4
통신기기	-14.2	9.7	26.5	4.9	4.6	6.4	-3.6
전자부품	1.8	6.7	22.2	11.5	11.2	8.4	3.9
자동차	-23.8	-0.9	61.7	-20.3	-21.5	-27.0	-25.3
조선	-8.1	6.4	23.7	-0.8	-5.5	2.4	7.3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 조선은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5.1%)과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17.7%)의 호조로 인해 7.3% 증가
- 반면, 자동차는 완성차(-31.7%) 및 부품(-17.0%) 감소로 인해 25.3% 감소하였고, 고무·플라스틱 역시 각각 4.8% 및 1.8% 감소하며 2.0% 감소

II

국내 실물 경제

01 국내 경기

□ 10월 전산업 생산, 전월비 -1.9%, 소비 소폭 증가, 투자 감소

- 10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전월비 -3.0%)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업도 소폭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1.9% 감소하면서 1달 만에 감소 전환
 - 광공업 생산은 의약품(전월비 3.2%) 등에서 증가함에도 자동차(-5.1%)와 1차 금속(-5.9%)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3.0%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금융보험(-2.1%) 등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0.3% 감소
 - 소매판매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전월비 -2.1%)가 감소한 영향에도, 의복 등 준내구재(2.8%)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2.2%) 판매가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비 0.2%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전월비 -4.4%)와 선박 등 운송장비(-8.7%)에서 모두 감소한 여파로 인해 5.4% 감소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3.9%) 공사 실적이 부진하면서 1.3%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소매판매액지수와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에서 상승한 반면, 내수출하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 등에서 하락하면서 전월비 0.1% 하락
 - 선행종합지수도 경제심리지수 등의 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재고순환지표,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함에 따라 0.2% 하락

국내 실물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2.2	-0.9*	1.9* (1.7*)	6.0* (0.8*)	4.0* (0.3*)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1.2* (1.2*)	3.7* (3.6*)	3.3*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12.4* (6.1*)	12.8* (1.1*)	4.2* (-2.4*)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1.8* (1.3*)	-1.2* (-2.3*)	-1.2* (-3.5*)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2.7 (1.7)	7.2 (0.4)	3.9* (0.5*)	4.5 (-0.7)	5.9 (-0.1)	1.4* (1.1)	4.8* (-1.9)
광공업생산지수	0.4	-0.4	4.4 (3.4)	12.7 (-1.2)	5.1* (0.5*)	7.8 (0.2)	9.9 (-0.5)	-1.8* (-1.1*)	4.5* (-3.0*)
제조업생산지수	0.5	-0.3	4.4 (3.4)	13.2 (-1.2)	5.1* (0.4*)	7.4 (-0.1)	10.4 (-0.3)	-1.9* (-1.1*)	4.6* (-3.1*)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2 (0.7)	5.7 (1.7)	3.9* (0.9*)	4.0 (0.1)	4.2 (-0.8)	3.4* (1.4*)	5.2* (-0.3*)
소매판매액지수	2.4	-0.2	6.4 (1.7)	4.4 (2.7)	5.0* (0.1*)	7.9 (-0.5)	3.8 (-0.8)	3.6* (2.4*)	7.4* (0.2*)
설비투자지수	-5.7	6.0	11.9 (6.9)	12.7 (0.7)	5.9* (-2.4*)	11.0 (2.0)	12.6 (-4.4)	-5.0* (-1.8*)	2.9* (-5.4*)
건설기성액	-2.3	-4.1	-7.2 (-3.6)	-5.3 (-2.4)	-6.3* (-1.9*)	-8.1 (-2.0)	-0.1 (1.4)	-9.9* (1.8*)	-0.8* (-1.3*)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12.0 100.3	112.3 98.8	114.4 99.7	116.6 101.2	117.1* 101.3*	117.0 101.3	117.1* 101.2*	117.2* 101.2*	117.1* 101.0*
선행종합지수(2015=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14.6 99.1	119.5 99.6	124.7 101.6	127.1 102.5	128.2* 102.4*	128.1 102.7	128.2* 102.4*	128.2* 102.1*	128.0* 101.6*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02 고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2.4% 증가

- 10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감소세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5% → 2.4%)

- 제조업의 감소폭이 전월보다 더욱 축소(-0.8% → -0.3%)
- 농림·어업의 증가율이 전월보다 소폭 낮아지고(1.4% → 1.3%), SOC·기타서비스업의 증가세도 약간 둔화(3.3% → 3.0%)
- 건설업의 증가율이 소폭 하락(2.7% → 2.5%)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감소율도 전월보다 약간 더 하락(-1.5% → -1.7%)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산업	27,123	26,904	26,369	27,467	27,645	27,637	27,648	27,603	27,683	27,741
전년동기비	1.1	-0.8	-1.4	2.3	2.1	2.2	2.0	1.9	2.5	2.4
농림·어업	4.1	3.6	-0.2	0.2	1.5	1.0	0.7	2.4	1.4	1.3
제조업	-1.8	-1.2	-0.6	0.1	-0.8	-0.2	0.1	-1.7	-0.8	-0.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2.9	2.8	2.7	2.5	2.6	3.3	3.0
건설업	-0.7	-0.2	1.7	7.0	4.4	7.0	4.6	6.1	2.7	2.5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6.9	-2.4	-2.6	-2.7	-3.5	-2.7	-1.5	-1.7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1.8	5.2	6.9	5.8	6.2	6.3	8.3	9.0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5	0.9	-0.4	4.3	4.1	3.9	4.2	3.7	4.3	3.9
실업률(계절조정, %)	3.8	4.0	4.4	3.7	3.0	3.7	3.3	2.8	3.0	3.2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1.6% → 12.5%)를 비롯해서 교육서비스(5.6% → 6.1%)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5.1% → 5.4%)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에도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0.1% → -2.7%)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3.8% → 1.4%)에서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4.3% → 3.9%)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2%로 2개월 연속 상승세

03 물가

□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4% 상승, 전년동월비 3.7% 상승

- 11월 소비자물가는 기타상품·서비스(전월비 -0.5%)와 오락 및 문화(-1.6%)를 제외하고 교통(2.0%), 통신(0.6%), 의류·신발(1.3%) 등이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4% 상승(전년동월비 3.7%,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0.4	0.5	1.1 (1.2)	2.5 (0.5)	2.6 (0.8)	2.4 (-0.1)	2.6 (0.2)	2.6 (0.6)	2.5 (0.5)	3.2 (0.1)	3.7 (0.4)
근원물가	0.9	0.7	0.9 (0.6)	1.4 (0.6)	1.8 (0.5)	1.5 (0.1)	1.7 (0.1)	1.8 (0.3)	1.9 (0.3)	2.8 (0.3)	2.3 (0.1)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금융·외환

□ 10월 기업대출 증가 규모 확대, 가계대출 증가 규모 축소, 12월 초(12월 1~10일) 금리 보험, 원/달러 환율 상승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대출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된 모습(2021년 9월 +7.7조 원 → 2021년 10월 +10.3조 원, 대기업 +2.3조 원, 중소기업 +8.0조 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지속,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
 - CP는 전월에 비하여 감소폭이 줄어들며 순상환 규모가 소폭 축소되었고, 회사채는 금리 변동성 확대, 전월 선발행 확대 등의 영향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공개가 줄어들면서 전월보다 축소

기업 자금조달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19		2020		2021				2021년 10월 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중	8월	9월	10월	
은행 원화대출 (대기업)	45.2	7.5	106.3	9.2	82.9	7.9	7.7	10.3	1,059.3
(중소기업)	-0.9	1.1	24.8	1.0	6.5	0.3	0.3	2.3	178.3
〈개인사업자〉	46.1	6.3	81.5	8.2	76.5	7.5	7.4	8.0	881.0
	21.3	2.8	41.8	4.3	33.2	3.4	3.5	2.6	419.2
회사채순발행	17.2	3.6	14.7	1.0	17.1	-0.2	2.0	0.2	-
CP 순발행	5.8	0.1	4.1	-1.5	6.5	-0.2	-1.3	-1.0	35.0
주식발행	4.6	0.5	7.1	1.2	26.0	6.6	1.8	1.1	-
은행 가계대출	46.5	7.2	80.2	10.6	69.1	6.1	6.4	5.2	1,057.9
주택담보대출	35.2	4.6	55.8	6.8	52.6	5.8	5.6	4.7	774.5
기타 대출	11.4	2.5	24.6	3.8	16.4	0.3	0.8	0.5	282.4

자료: 한국은행.

- 10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2021년 9월 +6.4조 원 → 2021년 10월 +5.2조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담대출 취급 감소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된 모습이며, 기타 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에 그친 모습
- 국고채(3년) 금리는 대외 금리 상승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지만, 미 FOMC의 긴급 시장안정화 조치, 국내 기관의 국채선물 매수,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하여 하락하며 그간의 상승폭을 반납하며 보험세(12월 1일 1.81% → 12월 10일 1.81%, 변동 없음, 보험)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가 글로벌 회복세 둔화 우려감으로 상승세를 보인 영향과 위험선호 심리 위축,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세, 위안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12월 1일 1,179.2원 → 12월 10일 1,181.3원, 2.1원 상승)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0		2021					
	3/4	4/4	1/4	2/4	3/4	10월	11월	12월 10일
국고채(3년)	0.85	0.98	1.13	1.45	1.59	2.10	1.80	1.81
회사채(3년, AA-)	2.19	2.21	2.06	1.97	2.05	2.57	2.37	2.40
CD(91일)	0.63	0.66	0.75	0.68	1.04	1.12	1.26	1.27
CP(91일)	1.11	1.09	1.00	0.97	1.18	1.24	1.49	1.52
원/달러	1,169.5	1,086.3	1,131.8	1,126.1	1,184.0	1,168.6	1,187.9	1,181.3
원/100엔	1,112.1	1,054.3	1,027.3	1,022.1	1,058.2	1,031.7	1,049.6	1,034.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종가 기준.

05 수출입

□ 11월 수출 32.1% 증가, 수입 43.6% 증가, 무역수지 흑자 30.9억 달러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2.1% 증가한 604.4억 달러를 기록, 수입은 43.6% 증가한 573.6억 달러, 무역수지는 30.9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요인으로 32.1% 증가
 - 수입은 내수 회복과 수출 경기 호조 등으로 1차 상품(88.0%)과 중간재(45.9%)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3.6% 증가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출	5,422 (-10.4)	5,125 (-5.5)	1464 (12.5)	1567 (42.1)	1646 (26.5)	555 (29.7)	532 (34.7)	559 (16.9)	556 (24.1)	604 (32.1)
수입	5,033 (-6.0)	4,676 (-7.1)	1365 (12.3)	1491 (37.6)	1569 (37.5)	537 (38.2)	516 (44.0)	516 (31.0)	538 (37.7)	574 (43.6)
무역수지	389	449	99	76	77	18	16	43	18	31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11월 실적은 잠정치.

Ⅲ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10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4.6% 증가, 전월비 3.1% 감소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13.5%), 전자부품(-9.7%), 금속가공(-8.9%) 등에서 상당폭 줄어들었지만, 반도체(38.7%), 의약품(20.8%), 기계장비(7.5%) 등의 업종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비 4.6%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2.3%)는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공업(5.5%)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경공업(-0.1%)은 감소폭이 축소
 - 전월비 기준으로는 담배(7.6%), 의복 및 모피(5.1%), 의약품(3.2%) 등의 업종이 늘어났지만, 1차 금속(-5.9%), 자동차(-5.1%), 기계장비(-4.4%) 등의 업종에서 줄어들면서 전월비 3.1%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은 자동차, 담배,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들었지만, 반도체, 식료품,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비는 0.4% 증가하고, 전월비는 보합세 기록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1.0%로 전월보다 7.5포인트 상승하였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의 감소폭(-1.2% → -3.9%,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은 확대되었고,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19)	2019	2020	2021					
				2/4	3/4*	8월	9월*	10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6.7	106.3	113.7	111.8	109.5	110.1	113.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12.7	5.1	9.9	-1.8	4.5	-3.0
제조업(원지수)	9,484.5	106.6	106.3	114.4	112.1	109.6	110.8	114.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13.2	5.1	10.4	-1.9	4.6	-3.1
섬유	135.0	-5.9	-10.5	25.0	4.6	9.9	-7.5	-0.1	-3.3
화학	883.8	-1.3	-3.0	15.7	7.8	9.9	2.2	2.2	-1.9
철강	454.3	-2.2	-6.3	13.3	12.0	14.7	2.7	2.1	-5.6
반도체	1,285.6	11.7	22.7	27.2	33.9	36.8	30.6	38.7	-1.0
컴퓨터·주변장치	31.3	-8.0	-7.9	8.8	-6.5	-2.4	-19.3	-11.7	4.8
통신·방송장비	131.5	-2.8	-11.3	41.7	18.9	28.4	12.6	8.8	-12.3
의료·정밀·광학	218.0	-11.0	3.9	31.7	16.2	17.8	6.9	2.8	-9.3
기계장비	819.2	-5.9	3.6	18.4	6.8	11.1	1.4	7.5	-4.4
자동차	981.6	-0.5	-10.0	22.5	-8.7	6.1	-24.3	-13.5	-5.1
조선	206.3	17.6	8.6	-17.6	-22.7	-22.1	-24.5	-13.7	0.5
중공업	-	0.6	0.6	14.4	6.6	11.8	-0.6	5.5	-2.9
경공업	-	-0.6	-4.0	7.4	-1.6	4.3	-7.9	-0.1	-3.8
제조업ICT	-	4.8	11.9	19.9	20.9	23.6	17.3	22.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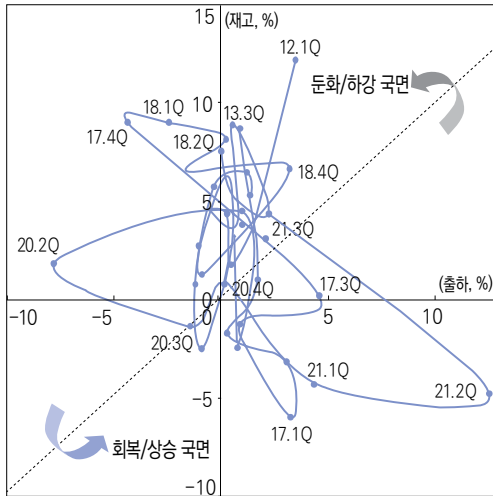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재고의 증가폭(3.2% → 7.5%)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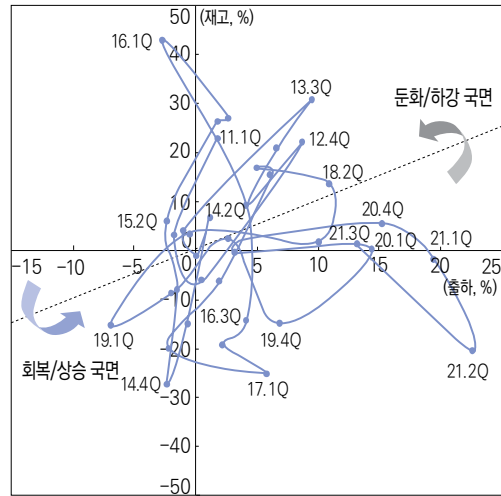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1%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12.1Q~21.3Q)



자료: 통계청.
주: 21.3Q는 2021년 7월~10월 평균.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12.1Q~21.3Q)



자료: 통계청.
주: 21.3Q는 2021년 7월~10월 평균.

□ 13대 주력산업의 전반적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 흑자 대폭 확대

● 13대 주력산업 수출이 대부분 증가

- 반도체(40.1%), 컴퓨터(73.5%) 등 주력산업의 수출이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한 가운데 석유제품(125.5%), 석유화학(63%)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 시현
- 선박류의 경우 25억 달러의 대형 액화 플랜트(FLNG)선이 11월 중 모잠비크로 인도되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
- 다만, 자동차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의한 해외 현지 공장 가동률 저하에 따라 미국과 EU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동차	5.3	-13.1	31.4	74.8	6.5	12.3	16.8	-6.1	-4.7	3.3
자동차부품	-2.5	-17.3	5.6	123.2	14.9	34.9	22.1	-5.1	-1.2	-2.2
선박류	-5.2	-2.0	28.3	11.9	-1.4	10.2	38.9	-40.4	6.4	237.6
일반기계	-1.9	-8.9	-1.4	21.2	15.8	18.2	23.4	7.8	12.7	11.6
철강	-8.6	-14.5	7.5	50.4	45.2	41.5	53.4	41.6	48.5	45.9
석유화학	-14.8	-16.4	26.5	80.3	64.0	60.2	81.6	52.2	68.8	63.0
석유제품	-12.2	-40.6	-16.6	112.6	71.4	75.7	54.5	84.3	144.2	125.5
섬유	-8.0	-13.3	-8.3	46.1	9.9	17.4	19.0	-3.7	21.9	17.0
가전	-3.6	0.7	16.1	66.5	11.7	29.7	12.3	-4.1	13.8	21.0
무선통신기기	-17.6	-6.4	21.5	38.5	25.7	5.0	62.0	19.6	15.5	16.5
컴퓨터	-20.6	57.2	2.8	8.9	34.0	26.4	26.1	49.4	52.7	73.5
반도체	-25.9	5.6	14.0	29.7	36.3	39.4	42.6	28.2	28.8	40.1
디스플레이	-17.0	-12.2	16.3	36.0	25.2	38.0	23.7	17.3	5.3	10.4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1월 실적은 잠정치.

(2)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 지속으로 생산과 내수 감소세 지속, 수출은 소폭 증가

- 11월 내수는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지만, 감소폭은 축소되어 전년동월비 17.1% 감소
 - 국산차의 경우 신차 효과 등으로 내수 판매가 전월비 15% 증가하고,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축소
 - 수입차의 경우 공급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전월비 등록 대수 증가가 0.2%에 그치고 전년 동월비 31.4% 감소하여 감소폭 확대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5	-10.0	11.2	22.5	-8.7	6.1	-24.3	-13.5	-
	생산(전기비)	-	-	4.8	-6.7	-4.5	2.9	-9.7	-5.1	-
	출하	0.4	-9.6	11.5	23.3	-6.8	5.5	-21.0	-13.5	-
	재고	2.1	9.2	2.5	3.3	0.1	4.5	0.1	-0.6	-
	가동률	3.6	-9.1	9.1	17.4	-12.4	2.2	-26.9	-16.5	-
	내수판매동향	-1.6	5.7	11.2	-12.9	-15.0	-3.8	-29.8	-21.4	-17.1
교역 동향	수출	2.4	-14.5	21.7	88.3	9.2	18.6	-5.8	-3.6	1.5
	수입	-1.1	7.3	22.5	37.2	13.2	8.2	-13.7	-17.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11월 수출은 소폭 증가하며 감소세를 마감
 - 완성차의 경우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비 3.3%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기차의 수출이 51.6%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
 - 반면, 해외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정상화 지연으로 자동차부품은 2.2% 감소
- 10월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장기화로 감소세 지속
 - 부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차량 생산 차질과 일부 생산 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생산, 출하가 모두 전년동월비 감소하였고, 가동률도 하락

(3) 조선

□ 생산지표 침체는 다소 완화, 수출은 FLNG 인도로 급증

-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일부 선형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운데 10월 말 기준 세계 선박 누적 발주량은 전년동기비 109.0% 증가한 4,100만 CGT를 기록하였으나 2년 전 수주의 영향으로 우리의 생산지표는 침체 지속
 - 원자재 물동량, 공급망 등의 영향으로 벌크선, 컨테이너선, LPG선의 발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가운데 우리의 10월 누적 수주량은 전년동월비 약 119.0% 증가한 1,580만 CGT를 기록
 - 누적된 일감인 10월 말 기준 수주잔량은 약 2,880만 CGT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중국의 3,630만 CGT에 이어 2위로 나타났고, 건조량도 940만 CGT로 나타나 중국의 1,100만 CGT에 이어 2위를 기록
 - 신조선가치수는 강재가의 선가 반영으로 10월 말 기준 21.0% 상승한 152를 기록하였고, 해운의 BDI는 케이프급 가용선박 부족으로 12월 7일 기준 3,352로 상승하였으며, 컨테이너선 HR 지수는 약세 이후 4,462로 다소 회복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7.6	8.6	-15.6	-17.6	-22.7	-22.1	-24.5	-13.7	-
	생산(전기비)	-	-	-14.3	-4.0	-2.7	-4.4	6.5	0.5	-
	출하	20.0	7.2	-17.2	-18.1	-21.6	-20.7	-23.5	-11.1	-
	가동률	42.3	21.1	-9.2	-11.0	-19.3	-18.8	-21.6	-11.1	-
교역 동향	수출	-5.2	-2.0	28.3	11.9	-1.9	38.1	-40.4	6.4	237.6
	수입	-9.7	44.4	-3.6	-5.6	40.1	247.9	-39.5	-36.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 11월 수출은 그간 건조를 진행해왔던 VLCC, LPG선, 제철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의 선사 측 인도가 진행되었고, 특히 모잠비크의 Rovuma 분지 해상에서 LNG를 생산할 FLNG가 인도되면서 237.6% 급증
 - 국내 주력 선종들의 인도 외에 삼성중공업이 Technip, JGC와 컨소시엄으로 건조한 25억 달러 상당의 해상부유식 LNG생산설비인 모잠비크 FLNG(모잠비크 Rovuma 분지 Area 4 해상광구용)가 인도되면서 수출이 급증
- 10월 수입은 일부 엔진 수입이 늘고 일본에서의 벌크선 반입이 증가했으나, 선박용 부품 수입 감소 외에 대일 중고 탱커 반입이 크게 줄었고 대중국 벌크선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감소 지속
 - 대일본 중고 벌크선 반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탱커가 51.9% 감소하고 선박용 부품이 7.4% 감소한 반면, 선박용 압축점화식 엔진 수입이 39.0% 증가하였으나 대중 벌크선 반입이 발생하지 않아 10월 수입은 36.2% 감소 지속

(4) 일반기계

□ 생산 증가세 확대,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

- 10월 생산은 전월 대비 4.4% 감소하였지만, 전년 동월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7.5% 증가하여 증가폭 확대
 - 내수출하가 소폭 감소로 전환하였지만, 설비투자와 국내 기계수주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전반적인 생산활동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
 - * 기계류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8월) 14.3 → (9월) 0.8 → (10월) -1.2
 - *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8월) 12.9 → (9월) 4.3 → (10월) 7.0
 - *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8월) 39.6 → (9월) 17.7 → (10월) 16.0
 - 재고율(재고/출하)은 수요 대응을 위한 재고 확보가 늘어 3.3% 상승
 - * 재고율(%): (2021년 8월) 109.6 → (9월) 104.7 → (10월) 108.0
 - 가동률은 출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5.6% 상승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9	3.6	9.4	18.4	6.8	11.1	1.4	7.5	-
	생산(전기비)	-	-	2.2	2.1	-1.8	-2.2	0.5	-4.4	-
	출하	-5.1	1.6	8.0	19.3	6.4	9.7	0.3	9.4	-
	재고	2.6	8.4	14.1	19.3	13.0	20.4	13.0	14.5	-
	가동률	1.0	-6.6	-4.7	11.9	5.8	13.8	0.5	5.6	-
교역 동향	수출	-1.9	-8.9	-1.4	21.2	15.8	23.4	7.8	12.7	11.6
	수입	-3.6	-0.2	12.8	14.0	5.6	10.9	3.1	6.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1.6%, 전월비 7.9% 증가한 47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주요 수출 품목인 가공·공작기계류와 건설기계의 글로벌 수요 호조에 힘입어 2018년 10월(49억 8,000만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간 수출 실적 달성
 - 중국, 미국, 유럽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등 대부분 권역에서 수출 증가세 지속
 - * 10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중국(10.1, 6.8%), 미국(8.1, 32.1%), EU (5.0, 15.5%), 중남미(2.2, 25.6%), 일본(2.0, 15.7%), 중동(1.4, 5.4%)
- 10월 수입은 내수 안정세로 전년동월비 6.6% 증가한 25억 7,600만 달러 기록
 - 주요 품목별로는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57.2%), 금속공작기계(56.5%), 제지인쇄기계 (37.8%), 운반하역기계(30.2%)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섬유 및 화학기계(-35.9%), 압연기 및 주조설비(-7.3%) 등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 지속

(5) 철강

□ 내수 위주 공급 기조, 수출은 가격 요인으로 증가 지속

- 10월 생산은 내수 회복으로 전년동월비 2.1%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 영향의 기저효과가 종료되며 증가세는 점차 완화
 - 자동차, 가전용 판재류 및 봉강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반덤핑 수입규제의 영향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한 STS냉연강판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의 수입 역시 급증하며 생산은 소폭 증가
 -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건설용 강재의 생산은 소폭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철근의 경우 재고 확보 차원에서 수요 및 생산이 증가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H형강 -0.5%, 철근 10.6%, 판재류 4.8%, STS냉연강판 24%, 컬러강판 18.7%
- 11월 수출은 가격 요인,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으로 전년동월비 45.9% 증가
 - 국내 위주 공급의 지속으로 수출 물량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석탄 가격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글로벌 철강 가격이 지속되면서 금액 기준 수출은 7개월 연속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 기록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0년 11월) 812 → (2021년 11월) 1,313(61.7%)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EU 107.9%, 일본 46%, 중남미 45.4%, 중동 31.2%, 인도 8.1%, 중국 -0.5%
- 10월 수입은 내수 증가, 기저효과 및 재고 확보 목적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월비 76.1% 증가
 - 철근 등 건설용 강재의 경우 중국의 감산정책으로 대중국 수입은 급감한 반면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
 - 국내 열연업체의 대보수, 중국의 감산정책 등에 따른 물량 확보 차원에서 대다수 제품의 수입이 확대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2	-6.3	-1.9	13.3	12.0	14.7	2.7	2.1	-
	생산(전기비)	-	-	0.0	1.8	2.5	-0.8	0.5	-5.6	-
	출하	-2.0	-6.1	2.2	17.7	5.4	5.9	-2.5	1.2	-
	재고	-0.3	-16.8	-19.3	-26.1	-5.6	-11.4	-6.0	-1.6	-
	가동률	-2.1	-6.0	-1.5	13.7	12.2	14.7	2.7	2.1	-
교역 동향	수출	-8.6	-14.5	7.5	50.4	45.2	53.4	41.6	48.5	45.9
	수입	-0.9	-24.7	3.3	40.5	113.1	124.9	91.6	76.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6) 정유

□ 수출은 단가와 물량의 동반 상승 추세 지속

- 10월 생산은 내수 및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비 4.2% 증가
 - 내수는 항공유와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의 수요 확대로 11.7%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윤활유(137.4%), 나프타(24.0%), 항공유(13.1%), 병커C유(4.6%), 휘발유(1.4%), 경유(-1.2%), 아스팔트(-2.3%), LPG(-5.4%)
 - 수출물량은 수송용 석유제품 중심의 수출 호조로 24.6%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병커C유(261.8.3%), 윤활유(89.3%), 휘발유(42.1%), 나프타(31.1%), 항공유(30.3%), 경유(10.9%), LPG(-30.1%), 아스팔트(-46.1%)
- 11월 수출액은 단가 및 물량의 동반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125.5% 증가
 - 전월비 기준 수출액 및 수출단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비축유 방출 영향으로 상승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증가율): (2020년 11월) 43.4 → (2021년 11월) 80.3(84.9%)
 -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상승률): (2020년 11월) 47.8 → (2021년 11월) 92.5(93.5%)
 - * 석유제품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0년 11월) 17.5 → (2021년 11월) 39.6(125.5%)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5	-6.3	-8.6	5.7	3.7	5.7	4.3	4.2	-
	생산(전기비)	-	-	-1.4	6.2	-0.8	3.6	-2.2	0.5	-
	출하	-1.4	-7.3	-11.9	1.1	-0.1	0.2	1.5	5.9	-
	재고	-10.5	-8.6	-17.7	-9.9	5.2	2.2	5.2	6.4	-
	가동률	-2.3	-6.2	-8.7	5.6	3.8	5.6	4.8	4.2	-
	내수판매동향	-0.3	-5.8	0.3	5.0	9.6	8.8	11.1	11.7	-
교역 동향	수출	-12.2	-40.6	-16.6	112.6	69.8	54.5	84.3	144.2	125.5
	수입	-18.2	-26.1	-19.0	151.6	129.4	136.6	116.3	265.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수출물량은 글로벌 에너지 및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확대 추세 지속
-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및 아세안 국가로의 증가 추세는 지속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석유제품 수입 소비세 부과 이후 6개월 연속 감소

* 지역별 수출 증가율(%): 아세안(366.1), 미국(143.7), 일본(97.4), 중국(-6.7)

(7) 석유화학

□ 제품 단가 상승 및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수출 2위 품목 부상

- 10월 생산과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각각 2.2%, 6.7% 증가
 - 10월 국제유가는 석유 수요 증가 속 공급 부족, 리비아 정세 불안 지속 등의 영향으로 상승
 - 에틸렌은 원료인 납사 가격 강세, 제한된 선박 가용성의 영향 등으로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가격 유지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3	-3.0	2.8	15.7	7.5	9.9	2.2	2.2	-
	생산(전기비)	-	-	3.6	1.9	-0.9	-0.7	-0.7	-1.9	-
	출하	1.1	-2.9	2.8	10.6	1.8	5.8	-3.9	6.7	-
	재고	-0.4	-6.2	-11.2	3.2	25.1	14.7	25.2	17.5	-
	가동률	-4.4	-1.8	0.4	9.3	4.3	8.0	0.5	-1.4	-
교역 동향	수출	-14.8	-16.4	26.6	81.0	63.9	81.5	52.0	68.8	63.0
	수입	-12.8	-15.1	18.4	71.7	44.1	55.2	34.0	33.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 국내 생산설비 가동률은 전방산업인 자동차의 생산 감소 및 제품가격 하락으로 1.4% 감소
- 원료인 에틸렌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보험세를 보인 HDPE는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가격 지속
- 11월 수출액은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63.0% 증가
 - 10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80.3달러를 기록하며 높은 가격세를 유지, 수출단가도 전년 동월비 41.7% 상승
 -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0년 11월) 1,062 → (2021년 11월) 1,505(41.7%)
 -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합성수지·합성고무 수요가 호조세
 - 중국 내 원자재 수급 차질, 전력난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수출은 수출단가 강세 및 위생·의료용품에 대한 수입 수요 증가세 지속
 - 중남미, 인도, 중동 등의 수출 시장에서 플라스틱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제품단가 상승세 기록

(8) 섬유

□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생산과 수출 증가

- 기업의 체감 경기 회복세와 소비 심리 상승으로 의류 소비가 큰 폭 증가
- 10월 생산은 수요 개선에 따라 5.5% 증가로 전환
 - 기업의 체감 경기 회복세로 화학섬유와 염색 가공 분야는 각각 5.1% 및 17.3% 증가
 - 의류의 경우 봉제의류는 크게 증가했지만 편조의류의 증가세는 둔화
 - 기타 섬유제품은 전년의 높은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세 지속
 - * 화학섬유 증가율(전년동월비): (8월) 25.4% → (9월) 7.0% → (10월) 5.1%
 - * 염색 가공 증가율(전년동월비): (8월) 43.5% → (9월) 13.3% → (10월) 17.3%
 - * 봉제의류 증가율(전년동월비): (8월) 9.6% → (9월) 3.8% → (10월) 13.6%
 - * 편조의류 증가율(전년동월비): (8월) 9.0% → (9월) 12.9% → (10월) 6.9%
 - * 기타 섬유제품 증가율(전년동월비): (8월) -11.4% → (9월) -20.4% → (10월) -15.4%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6	-14.8	-5.7	21.5	7.8	9.8	-2.0	5.5	-
	생산(전기비)	-	-	-4.6	19.4	9.0	6.8	3.0	-0.7	-
	출하	-4.9	-11.9	-1.1	15.1	3.0	6.1	-2.6	2.1	-
	재고	-0.4	-4.7	-12.6	-3.9	-1.5	-0.4	-1.5	-0.4	-
	가동률	-2.5	-12.4	-4.0	34.7	11.6	17.4	-1.6	7.5	-
교역 동향	수출	-8.0	-13.3	-8.3	46.0	9.9	15.5	13.0	13.9	17.0
	수입	-0.1	-5.3	9.1	16.6	3.6	9.8	9.1	9.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 세계 주요국의 '위드 코로나' 국면 진입에 따른 글로벌 의류 수요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 베트남 등 주요 소싱 지역이 10월부터 봉쇄 및 격리를 해제하고 생산 정상화에 나서면서 섬유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
 -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2020년 11월) 10.2(-6.4%) → (2021년 11월) 11.9(17.0%)
 - * 10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미국 3.5(37.0%), EU 0.6(22.6%), 아세안 0.5(-1.6)

(9) 가전

□ 선진국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2% 감소, 전월비 4.0% 감소
 - 생산은 국내외 수요가 회복하면서 감소세가 둔화, 특히 생활가전 분야는 판매량 호조를 보이면서 생산이 증가로 전환
 - * 국내 가전제품 판매액 증가율(전년동월비): (8월) -5.4% → (9월) 0.7% → (10월) 11.6%
 - 전체 재고는 생활가전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비 3.3% 감소하였으나, 조명기기는 판매 부진 지속으로 재고 증가
 - 가동률은 생활가전과 영상음향기기 생산 호조로 하락폭이 완화
- 11월 수출은 선진국 수요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21.0% 증가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 수출의 증가로 최근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전월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반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은 최근 경기 부진과 코로나 확산의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감소
- 10월 수입은 베트남 공장 생산 위축에 따른 역수입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
 -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생산 위축으로 대중국 수입은 증가세 둔화, 대베트남 수입은 큰 폭의 감소 기록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3	3.1	8.5	5.8	-5.2	-2.8	-10.5	-1.2	-
	생산(전기비)	-	-	4.3	-3.8	-1.9	-9.1	3.3	-4.0	-
	출하	-4.3	1.4	3.8	2.1	-6.9	-6.5	-12.9	-4.0	-
	재고	-12.5	11.1	16.1	23.3	0.4	5.5	-0.2	-3.3	-
	가동률	-1.1	2.4	3.7	2.0	-6.5	-3.9	-10.1	-0.2	-
교역 동향	수출	-3.6	0.5	16.1	66.5	11.7	12.3	-4.1	13.8	21.0
	수입	-0.1	6.3	39.4	24.2	12.9	18.0	13.3	2.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생활가전), 조영기기.

- 베트남 공장의 생산 위축으로 멕시코로부터의 역수입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수입은 TV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세 유지

* 10월 수입 증가율(전년동월비): 멕시코 183%, 인도네시아 155%, 베트남 -25%

(10) 무선통신기기

□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 생산 증가 추세 지속

- 10월 생산은 수출과 내수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8.8% 증가했지만, 폴더블폰 출하가 급증한 8월 이후 생산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추세
 - 수출 호조로 출하도 전년동월비 3.1%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동률도 25.7% 상승했으며, 재고는 9.2% 증가
 - 가동률은 8월과 9월 각각 15.2%, 27.7% 상승했는데, 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출 증가 및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증가세에 기인
 - 10월 국내 휴대폰 시장은 5G 및 폴더블폰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2.3% 증가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8	-11.3	28.7	41.7	18.9	28.6	12.6	8.8	-
	생산(전기비)	-	-	7.5	0.1	-6.4	15.9	-4.7	-12.3	-
	출하	-7.7	-14.4	43.4	36.0	14.3	14.3	6.5	3.1	-
	재고	0.7	15.2	4.1	-7.5	-9.0	-20.2	-9.0	9.2	-
	가동률	-3.6	-8.5	29.1	24.1	24.2	15.2	27.7	25.7	-
교역 동향	수출	-17.6	-6.4	29.9	32.2	27.7	29.3	28.0	26.4	16.5
	수입	9.6	-4.9	27.2	13.3	9.1	9.9	9.7	15.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 10월 휴대폰 시장(가입자 회선 수 기준)은 신규 가입자가 감소했지만,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고객이 각각 5.7%, 10.1% 증가
- 11월 수출은 휴대폰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16.5%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며 13개월 연속 신장세
 - 11월까지 수출은 반도체 부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 축소(위드 코로나)에 따른 수요 회복과 신제품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6.4% 증가
 - * 품목별로 휴대폰 및 휴대폰부품 수출이 각각 전년동기비 13.6%, 1.5% 증가
 - 11월 휴대폰 수출은 5G 수요 회복과 부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6.8% 증가했는데, 휴대폰 부품 수출은 21.8% 증가
 - * 특히 대중국 수출이 27.1%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휴대폰업체들의 생산 확대에 따른 휴대폰 부품 수요 증가에 기인
- 10월 수입은 스마트폰,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비 15.7% 증가
 - 품목별로 휴대폰 수입이 전년동월비 35.6%,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가 22.8%, 휴대폰 부품은 4.0%, 방송용 통신기기는 34.9% 증가

(11) 반도체

□ 수출 증가세 지속, 11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0.1% 증가한 120억 3,000만 달러, 11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
 - 지난해 7월 이후 수출은 17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특히, 7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
 -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각각 24.5%, 34.4%, 39.6%, 43.0%, 28.2%, 28.8%, 40.1%로 매우 큰 폭으로 확대
- 10월 반도체 생산과 출하는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각각 38.7% 및 15.5% 증가
 -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고 글로벌 수요가 지속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출하도 증가
 - 10월 재고는 전년동월비 26.7% 증가하여 4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되었고 가동률은 9.9% 상승
-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구조 변화로 인하여 수출 증가세 유지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1.7	23.9	21.9	27.2	33.9	36.8	30.6	38.7	-
	생산(전기비)	-	-	16.9	-0.5	11.3	3.4	-1.6	-1.0	-
	출하	12.0	28.9	36.7	40.8	33.4	38.0	21.2	15.5	-
	재고	-9.6	9.0	4.3	-25.6	-2.7	-15.6	-2.9	26.7	-
	가동률	-3.0	3.7	4.5	7.1	9.1	10.0	5.8	9.9	-
교역 동향	수출	-25.9	5.6	14.0	29.7	36.4	43.0	28.2	28.8	40.1
	수입	5.2	6.9	13.0	25.1	20.6	21.0	21.9	13.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 하반기에 출시된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서버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증가
- 메모리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 구조가 안정된 모양새로 점차 변모 중

(12) 디스플레이

□ 모바일 OLED 수요 중심 수출 증가 지속,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성장률 둔화

- 10월 생산은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둔화
 - 생산은 전년동월비 9.7% 감소하였으나, 모바일 OLED 수요 증가로 전월비 증가로 전환
 - 반도체 공급망 불안에 따라 스마트폰, TV 등 주요 수요제품 생산 차질로 인한 수요 불안으로 생산 축소 및 재고 증가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0.4% 증가하여 8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인해 증가율 둔화
 - LCD 수출은 가격 상승과 기저효과로 5개월 연속 감소 이후 2.2% 증가로 전환
 -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채택률 상승과 폴더블폰 수요 증가로 OLED 수출은 14.0% 증가, 작년 9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
 - * OLED 출하량(백만 대): 모바일: (2020년 11월) 42.9 → (2021년 11월 추정) 50.0
 - TV: (2020년 11월) 0.5 → (2021년 11월 추정) 0.9
 - OLED 수출 비중이 70%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성수기에 따라 더 확대될 것
 - * 총수출에서의 OLED 비중(%): (2019년) 50.0 → (2020년) 60.6 → (2021년 9월) 76.2
 - 최대 수출 지역인 아세안 수출이 스마트폰 수요 확대에 15.5% 증가하여 전체 수출 중 54%로 비중 확대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3	-6.3	-4.6	1.7	-5.4	-4.4	-9.9	-9.7	-
	생산(전기비)	-	-	-7.1	-4.0	2.0	-0.1	-3.0	4.5	-
	출하	-11.8	-8.8	-8.6	-4.2	-9.4	-7.9	-13.3	-10.7	-
	재고	-35.0	-9.2	-20.7	-17.1	-9.7	-25.8	-9.7	5.7	-
	가동률	-6.1	-1.6	-4.7	3.2	-4.0	-2.3	-7.4	-6.8	-
교역 동향	수출	-17.0	-12.3	17.8	17.8	28.2	23.7	17.3	5.3	10.4
	수입	-9.6	-29.6	-32.7	-32.7	-32.8	-0.6	9.6	10.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9월 및 10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1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10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5.5% 증가

- 10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운수·창고, 숙박·음식업,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호조로 전년동월비 5.5% 증가
- 지식서비스산업은 정보통신, 금융·보험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4.8% 증가
- 서비스산업 중 생산·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9.8%)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매업(10.0%)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4.3%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2/4	3/4*	8월*	9월*	10월*
서비스 총지수	106.9	108.4	106.2	110.5	110.8	110.0	108.5	110.5	111.9
상승률	2.3	1.4	-2.0	-2.0	5.7	3.9	4.4	3.6	5.5
전기비	-	-	-	0.9	1.7	0.9	-0.9	1.5	-0.3
도·소매	1.5	-0.4	-2.6	-1.8	5.2	3.6	5.4	0.2	4.3
운수·창고	2.1	0.0	-14.2	-13.1	11.0	7.0	7.4	7.1	10.3
숙박·음식점	-1.9	-1.0	-18.5	-24.6	1.5	-1.5	-5.3	11.3	7.3
정보통신	1.4	3.5	1.4	0.0	3.9	6.9	7.8	5.8	7.3
금융·보험	5.8	1.7	14.0	18.7	9.7	6.3	6.4	4.6	7.2
부동산	0.2	0.4	5.5	0.5	5.7	0.4	4.2	1.2	2.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8	1.4	0.1	0.3	4.2	0.2	2.8	0.3	1.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0.6	2.3	-9.9	-11.7	5.6	3.0	2.1	2.1	4.3
교육	0.1	-0.5	-4.7	-3.9	3.0	1.6	0.8	2.2	1.9
보건·사회복지	5.6	8.1	1.4	-0.4	3.1	4.5	4.5	4.3	3.3
예술·스포츠·여가	-0.6	1.2	-32.6	-33.3	20.6	7.6	5.7	15.0	14.1
협회·수리·개인서비스	0.7	-1.5	-8.2	-10.4	0.3	-0.6	-2.6	-0.2	5.2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0	-0.4	3.3	2.3	6.1	3.4	6.1	-4.5	-4.0
지식서비스	3.2	3.1	3.9	4.7	5.5	4.5	4.8	3.8	4.8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운수·창고업은 항공운송업(32.6%),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24.4%)의 실적 호조 지속과 수상운송업(7.9%)의 실적 개선으로 전년동월비 10.3% 증가
 - 2021년 6월까지 실적 감소세가 두드러졌던 항공운송업은 9월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10월에도 항공여객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이 각각 전년동월비 43.1%, 28.2%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10.5%), 음식점업(9.7%)의 실적 호조로 인해 주점업(-1.7%)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비 7.3% 증가
- 정보통신업은 정보서비스업(17.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9.9%), 출판업(8.9%)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7.3% 증가
 - 정보서비스업은 2020년 10월 이후 두 자릿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을 보이며 정보통신업 상승을 주도
 - 출판업은 2021년 5월 이후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증가세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9.5%), 금융업(7.3%), 보험업(3.6%)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7.2% 증가
-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0.1%),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3.9%)의 실적 둔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2.7%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7.7%)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문서비스업(0.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5.3%)의 실적 악화 지속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1.7% 증가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21년 8월부터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8.3%),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0)의 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임대업(부동산 제외)(10.6%),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4.7%), 사업지원서비스업(2.1%) 모든 업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4.3% 증가
 - 임대업(부동산 제외)은 운송장비 임대업(15.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10.3)이 큰 폭의 증가세 주도
- 교육서비스업은 학원(16.9%)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중이 높은 초등교육기관(0.6%), 중등교육기관(-1.3%), 고등교육기관(-1.7%)의 실적 감소 및 둔화로 전년동월비 1.9% 증가

* 교육서비스업은 2020년 3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 3월 증가세 전환 이후 소폭의 증가세 유지

- 보건·사회복지업은 의원(3.7%), 병원(5.1%), 거주복지시설 운영업(3.8%)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3.3%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18.3%),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9.6%),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15.5%), 스포츠서비스업(10.0%)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14.1% 증가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 까지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 3월(8.3%)부터 다시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6.7%), 협회 및 단체(3.7%)는 증가하였으나,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3.9%)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5.2% 증가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7.9%)의 실적 악화로 전년동월비 4.0% 감소

(2) 고용

□ 10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3만 3,000명(2.3%) 증가

- 10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도·소매, 숙박·음식점, 협회·수리·개인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복지, 운수·창고, 정보통신, 교육 등 대부분 업종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월비 43만 3,000명(2.3%) 증가
- 보건·사회복지는 전년동월비 30만 2,000명(12.6%) 증가, 전체 서비스업종 취업자 수 증가의 69.7%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2021년 1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2021년 2월에 전월비 24만 5,000명 대폭 증가 이후 증가폭은 감소 추세이며, 10월에는 전월비 1만 1,000명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2/4	3/4	8월	9월	10월
총취업자 수	18,796	19,111	18,866	18,864	19,270	19,449	19,414	19,494	19,514
증감률	0.4	1.7	-1.3	-2.2	2.6	2.8	2.5	3.2	2.3
전기비	-	-	-	-0.3	4.1	0.9	-0.1	0.4	0.1
도·소매	-1.9	-1.6	-4.4	-5.1	-4.5	-4.0	-3.3	-3.5	-3.9
운수·창고	0.1	1.8	3.6	1.8	6.5	8.9	7.3	10.0	8.6
숙박·음식점	-2.0	2.7	-6.9	-10.1	1.2	-0.1	-1.8	1.4	-2.2
정보통신	7.0	2.8	-1.6	-2.1	4.9	8.7	8.8	12.6	11.0
금융·보험	5.8	-4.7	-2.7	-3.1	4.1	2.7	2.9	2.2	2.1
부동산	-2.2	5.3	-7.0	-12.4	2.7	6.5	6.9	7.3	9.9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4	5.5	0.6	-0.2	6.1	5.0	4.8	4.7	5.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4.6	0.1	2.7	4.3	5.6	4.6	3.5	1.6	1.7
공공행정·국방	4.9	-3.0	3.3	11.2	7.6	4.0	4.1	-3.1	-6.6
교육	-3.2	2.0	-4.6	-5.5	2.4	3.2	2.9	5.4	5.3
보건·사회복지	6.5	7.8	5.9	3.9	9.6	10.5	10.0	12.0	12.6
예술·스포츠·여가	3.8	11.3	0.3	-10.1	-6.2	-6.9	-8.3	-3.9	-3.9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2	-0.3	-3.5	-3.5	-3.6	-3.7	-3.4	-3.5	-4.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0.3	6.6	12.9	12.9	11.9	13.0	12.3	12.2	4.3
지식서비스	2.6	3.6	0.2	-0.9	5.9	6.6	6.4	8.1	8.1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운수·창고(12만 9,000명, 8.6%), 정보통신(9만 2,000명, 11.0%), 교육(9만 5,000명, 5.3%) 전문·과학·기술서비스(6만 1,000명, 5.2%), 부동산(4만 9,000명, 9.9%)도 전년동월비 크게 증가
- 숙박·음식점업은 전년동월비 4만 8,000명(-2.2%)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도 전년동월비 13만 5,000명(-3.9%) 감소해 전체 서비스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

- 예술·스포츠·여가(1만 9,000명, -3.9%), 협회·수리·개인서비스(5만 6,000명, -4.7%)도 감소
 - * 협회·수리·개인서비스는 2021년 1월(-8.5%)에 2015년 1월 이후 전년동월비 최대폭 감소 이후 3~4% 내외의 소폭 감소세 유지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56만 6,000명(8.1%) 증가(전월비로는 3만 명 증가)
 - 2021년 3월 전년동월비 증가세 전환 이후 증가폭 확대
-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51만 7,000명 증가(전월비로는 1만 5,000명 증가)
 - 전년동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년 6월) 37.9 → (7월) 38.0 → (8월) 42.0 → (9월) 63.6 → (10월) 51.7
 - 전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년 6월) 7.5 → (7월) 4.2 → (8월) -2.5 → (9월) 7.9 → (10월) 1.5

(3) 서비스수지

□ 10월 서비스수지 6억 2,600만 달러 흑자

- 10월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건설수지 흑자 확대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기타사업서비스수지 적자 감소로 전월 2,300만 달러 적자에서 6억 2,600만 달러 흑자로 전환(전월비 6억 4,900만 달러 증가)
- 운송수지는 해상운송수지의 흑자 대폭 확대로 전월비 1억 5,700만 달러 증가한 22억 1,700만 달러 흑자
 - 해상운송수지는 17억 7,000만 달러 흑자로 전월비 1억 4,200만 달러 증가하여 전체 운송수지 흑자 증가 주도
- 건설수지는 전월 2억 1,400만 달러 흑자에서 1억 700만 달러 증가한 3억 2,100만 달러로 흑자폭 확대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2/4	3/4	8월	9월	10월
서비스수지	-29,369	-26,845	-16,190	-2,342	-1,498	892	998	-23	626
가공서비스	-7,325	-7,611	-5,685	-1,494	-1,425	-1,468	-495	-456	-511
유지보수	-323	-348	-913	-230	-208	-194	-37	-122	-110
운송	-2,508	-1,734	2,132	1,506	3,290	5,170	1,516	2,060	2,217
여행	-16,566	-11,872	-5,630	-1,428	-1,805	-1,567	-607	-467	-446
건설	9,719	6,776	4,770	1,445	887	774	347	214	321
보험	107	-256	-336	86	-84	-86	-33	-17	33
금융	817	921	1,757	555	442	382	129	149	124
지식재산권 사용료	-2,063	-2,157	-3,034	-645	-984	-676	283	-577	-436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557	2,461	1,604	514	1,142	1,102	299	272	248
기타 사업서비스	-12,215	-12,391	-10,410	-2,576	-2,795	-2,660	-474	-1,091	-850
개인·문화·여가	227	271	184	93	155	240	78	101	56
정부	-797	-905	-629	-169	-115	-124	-8	-89	-20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건설 지급이 전월비 5,700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건설 수입이 전월비 1억 6,400만 달러 증가하며 흑자폭 확대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 지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적자 규모가 전월 5억 7,700만 달러에서 4억 3,600만 달러로 감소(전월비 2억 1,300만 달러 증가)
 -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 지급이 각각 전월비 1억 6,300만 달러, 8,400만 달러 감소하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적자폭 감소 주도
- 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연구개발서비스수지, 기술·무역·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 감소로 인해 전월 10억 9,100만 달러 적자에서 8억 5,000만 달러로 적자폭 감소(전월비 2억 4,200만 달러 증가)

- 연구개발서비스수지, 기술·무역·기타사업서비스수지 적자가 각각 전월비 9,000만 달러, 1억 6,800만 달러 감소
- 금융서비스수지는 전월비 2,500만 달러 감소한 1억 2,400만 달러 흑자
 - 명시적 수수료 및 기타금융서비스 수입이 전월비 2,700만 달러 감소하고, 금융중개서비스 수입도 2,100만 달러 감소하며 흑자 규모 소폭 감소
-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는 흑자 규모가 전월 2억 7,200만 달러에서 2억 4,800만 달러로 2,400만 달러 감소
 - 컴퓨터서비스수지 흑자가 전월비 2억 3,400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정보서비스수지 흑자는 전월비 2억 7,400만 달러 감소하여, 전체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흑자는 소폭 감소
- 여행수지는 4억 4,600만 달러 적자(전월비 2,000만 달러 증가)
 - 일반여행 수입이 전월비 3,100만 달러 감소하였으나, 유학연수 지급이 전월비 7,000만 달러 감소하여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소폭 감소
- 가공서비스지수는 가공서비스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적자 규모가 전월 4억 5,600만 달러에서 5억 1,100만 달러로 증가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10월 전국 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4.5% 증가
- 경기(13.9%), 세종(13.6%), 서울(12.7%)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울산(-5.6%), 충남(-5.1%) 등은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전국		0.4	-0.4	0.0	4.4	12.7	5.1	7.8	9.9	-1.8	4.5
수도권	서울	-6.4	-15.3	-10.1	0.9	11.4	7.8	10.6	12.0	1.7	12.7
	인천	-5.3	-1.0	-1.4	3.4	16.0	6.6	11.9	12.2	-3.2	4.8
	경기	3.6	8.6	1.0	11.0	19.0	12.0	15.3	18.2	3.4	13.9
충청권	대전	10.1	-6.9	-4.0	3.8	12.7	-9.9	-9.1	-14.7	-6.2	-0.7
	세종	2.1	7.1	10.2	8.8	14.8	12.9	11.6	15.3	11.7	13.6
	충북	1.8	-5.2	2.2	7.6	19.3	10.5	14.3	17.5	0.7	12.1
	충남	-4.4	-2.4	0.1	-0.2	6.9	-0.3	5.2	0.3	-6.2	-5.1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호남권	광주	-0.9	-0.2	7.6	7.9	25.5	-8.3	-9.8	0.2	-13.7	-4.3
	전북	-6.1	-5.7	-4.7	2.6	12.3	3.7	8.8	12.1	-7.5	4.8
	전남	2.1	-0.8	-3.7	2.9	9.1	9.9	7.2	14.3	8.3	11.0
대경권	대구	0.0	-11.5	-6.3	1.1	28.4	6.6	15.3	13.9	-7.4	-0.8
	경북	-2.0	-5.9	-4.1	4.3	10.0	-2.5	5.4	-6.0	-7.0	0.5
동남권	부산	-1.8	-6.6	-9.6	-7.4	2.2	1.0	0.8	2.8	-0.6	7.7
	울산	1.3	-6.4	-3.6	4.6	9.4	-2.2	0.1	6.3	-11.6	-5.6
	경남	1.6	-7.1	-5.8	-4.2	8.7	0.7	2.5	8.9	-7.9	0.7
강원권		0.6	-5.3	-5.1	-3.6	3.2	-1.4	2.5	9.1	-13.9	-1.0
제주권		-2.6	-6.1	-1.6	3.7	10.2	4.8	13.7	5.9	-5.4	2.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

(2) 고용

- 10월 전국 취업자 수는 2,774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비 2.4% 증가
 - 감소한 지역은 없는 가운데, 경기(5.7%), 충북(3.5%), 전남(2.9%), 강원(2.9%) 등에서 상대적으로 증가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전국		27,123 (1.1)	26,904 (-0.8)	26,952 (-1.6)	26,369 (-1.4)	27,467 (2.3)	27,645 (2.1)	27,648 (2.0)	27,603 (1.9)	27,683 (2.5)	27,741 (2.4)
수도권	서울	5,086 (0.1)	5,051 (-0.7)	5,054 (-1.5)	4,960 (-2.2)	5,081 (1.2)	5,077 (0.4)	5,087 (0.2)	5,053 (-0.6)	5,089 (1.4)	5,074 (0.5)
	인천	1,581 (0.4)	1,560 (-1.3)	1,556 (-2.0)	1,531 (-1.4)	1,575 (0.9)	1,575 (0.3)	1,566 (-0.3)	1,578 (0.1)	1,581 (1.2)	1,579 (1.2)
	경기	6,952 (2.4)	6,909 (-0.6)	6,906 (-1.9)	6,850 (-0.9)	7,154 (3.5)	7,255 (5.1)	7,261 (4.9)	7,238 (5.1)	7,266 (5.3)	7,314 (5.7)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충청권	대전	772 (1.7)	780 (1.0)	788 (0.4)	759 (-2.2)	787 (1.8)	797 (1.7)	794 (1.8)	801 (1.8)	797 (1.5)	795 (0.6)
	세종	168 (13.5)	180 (7.1)	182 (5.2)	180 (4.7)	188 (4.4)	189 (2.2)	188 (2.2)	188 (1.6)	190 (2.2)	188 (2.2)
	충북	880 (0.5)	890 (1.1)	887 (0.2)	859 (-1.3)	907 (0.6)	910 (1.0)	906 (-0.3)	914 (1.9)	911 (1.4)	921 (3.5)
	충남	1,196 (1.4)	1,176 (-1.7)	1,182 (-1.7)	1,115 (-1.1)	1,217 (2.3)	1,231 (2.0)	1,230 (1.7)	1,228 (1.8)	1,234 (2.4)	1,239 (1.6)
호남권	광주	750 (0.1)	748 (-0.3)	748 (-1.4)	736 (-1.5)	752 (0.8)	751 (0.3)	754 (0.7)	751 (0.5)	749 (-0.3)	750 (0.1)
	전북	928 (1.4)	932 (0.4)	947 (1.4)	923 (1.9)	962 (3.6)	970 (2.4)	971 (2.6)	969 (2.8)	970 (2.0)	972 (1.7)
	전남	974 (1.4)	974 (0.0)	975 (-1.4)	947 (-1.5)	995 (1.8)	1,001 (1.9)	992 (0.9)	1,000 (1.8)	1,010 (2.9)	1,017 (2.9)
대경권	대구	1,219 (-0.6)	1,184 (-2.9)	1,206 (-1.0)	1,184 (1.3)	1,229 (5.7)	1,231 (2.6)	1,235 (3.5)	1,227 (2.1)	1,232 (2.2)	1,232 (2.3)
	경북	1,430 (0.2)	1,418 (-0.8)	1,422 (-1.9)	1,357 (-2.9)	1,417 (0.3)	1,439 (-0.1)	1,438 (-0.5)	1,432 (-0.6)	1,447 (0.6)	1,450 (0.8)
동남권	부산	1,676 (1.1)	1,640 (-2.1)	1,649 (-2.7)	1,618 (-2.0)	1,670 (3.4)	1,682 (2.4)	1,685 (2.8)	1,691 (2.8)	1,669 (1.5)	1,664 (0.8)
	울산	571 (-0.5)	560 (-1.9)	559 (-3.1)	549 (-2.7)	552 (-0.5)	558 (-0.9)	554 (-1.4)	558 (-0.5)	563 (-0.4)	564 (0.7)
	경남	1,749 (0.2)	1,729 (-1.1)	1,722 (-2.3)	1,682 (-2.8)	1,762 (2.0)	1,759 (1.2)	1,764 (1.1)	1,753 (0.5)	1,760 (1.8)	1,755 (1.2)
강원권		811 (2.8)	795 (-2.0)	786 (-3.2)	744 (-2.6)	832 (2.2)	841 (3.1)	844 (3.4)	841 (2.6)	837 (3.1)	841 (2.9)
제주권		382 (2.7)	378 (-1.0)	383 (-1.5)	375 (-1.3)	388 (4.6)	380 (0.5)	380 (1.1)	381 (0.5)	378 (-0.5)	386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4.1% 증가한 556억 달러를 기록
 - 수출 증가세가 12개월 연속 이어지며 연간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전남(89.3%)이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율 기록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전국		-10.4	-5.5	4.1	12.6	42.1	26.4	29.6	34.8	16.7	24.1
수도권	서울	-11.2	-7.1	5.9	18.7	72.9	22.2	25.4	30.2	12.9	19.4
	인천	-6.8	-0.8	1.1	-1.0	27.7	29.9	26.6	45.9	20.0	42.9
	경기	-18.6	-1.3	6.7	15.6	27.2	17.1	19.7	24.7	8.5	15.9
충청권	대전	-10.3	24.0	28.6	3.3	12.6	-9.4	-10.9	3.2	-18.3	-13.9
	세종	4.5	1.2	4.1	13.4	31.1	16.4	12.8	7.1	29.8	29.6
	충북	-5.0	12.6	27.7	24.1	19.2	20.5	29.9	21.7	11.2	4.2
	충남	-13.1	-0.5	10.4	12.9	42.4	39.1	46.5	42.7	30.3	26.5
호남권	광주	-8.5	2.7	17.0	17.7	49.3	-2.0	6.2	4.0	-14.7	0.1
	전북	-16.5	-10.6	2.7	18.1	59.5	33.1	44.6	50.2	10.9	38.0
	전남	-11.0	-16.9	-10.6	22.3	84.3	61.7	61.8	54.5	70.1	89.3
대경권	대구	-7.6	-16.4	-7.8	5.7	65.1	23.6	30.9	31.5	10.7	15.1
	경북	-7.8	-1.6	11.3	14.3	31.9	20.3	11.5	36.9	14.9	8.9
동남권	부산	-3.4	-18.7	-16.2	8.7	59.5	37.8	36.3	47.6	31.4	49.6
	울산	-0.9	-19.3	-13.1	5.4	65.7	31.0	45.6	42.4	10.6	38.2
	경남	-2.2	-8.8	7.6	5.6	20.1	20.0	17.0	37.3	10.8	4.0
강원권		-0.4	-3.1	11.0	34.7	47.5	39.4	46.6	41.1	31.5	49.3
제주권		-18.3	4.0	13.4	16.9	92.7	80.5	145.2	82.8	41.2	56.6

자료: 한국무역협회.

02 지역별 동향

(1) 수도권

- 서울: 생산 증가(12.7%), 고용 증가(0.5%), 수출 증가(19.4%)
 - 주요 업종인 의복 및 모피제품(1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4.7%) 등 생산이 상승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제조업(0.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의 증가로 전체 고용 증가
 - 주요 수출품인 합성수지(56.8%), 반도체(16.5%), 석유제품(134.5%)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인천: 생산 증가(4.8%), 고용 증가(1.2%), 수출 증가(42.9%)
 - 기타 기계 및 장비(16.8%) 등 생산이 증가하며 전체 생산 증가 전환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3%)의 증가로, 농림·어업(-56.3%), 제조업(-3.7%)이 감소하였음에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92.6%), 농약 및 의약품(99.2%), 철강판(50.0%), 비누치약 및 화장품(35.7%) 등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 경기: 생산 증가(13.9%), 고용 증가(5.7%), 수출 증가(15.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5.4%) 등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6.6%), 제조업(1.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7%)의 전 부문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28.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6.0%), 반도체 제조용장비(8.8%)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생 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0	-21.0	-20.2	-6.3	10.3	7.1	10.8	6.8	4.4	14.4
		전자부품 외	-1.2	-17.0	-5.7	1.1	11.3	23.8	-0.5	47.6	29.1	14.7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8.2	-5.8	-9.7	-0.8	15.3	0.9	-2.8	9.0	-2.5	-2.6
	인천	기계 및 장비	-10.2	-1.4	11.3	20.1	52.8	20.0	37.0	11.4	12.6	16.8
		자동차 및 트레일러	-1.9	-9.9	-8.5	-2.8	6.4	-26.4	-20.2	-13.8	-40.7	-35.5
		전자부품 외	-7.8	2.9	31.5	11.6	74.8	39.5	23.3	90.4	17.3	-5.3
	경기	전자부품 외	3.9	19.7	7.6	22.3	22.4	25.4	27.4	29.5	20.0	35.4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	-10.0	0.3	22.4	23.4	-7.6	-0.3	8.8	-25.6	-21.4
		기계 및 장비	27.2	14.0	-16.5	-10.4	18.8	-16.3	-11.3	-5.0	-31.0	-23.0
고 용	서울	농림·어업	8 (14.3)	7 (-12.5)	8 (0.0)	6 (0.0)	7 (-12.5)	3 (-62.5)	3 (-62.5)	3 (-62.5)	4 (-50.0)	4 (-55.6)
		제조업	449 (-0.2)	447 (-0.4)	443 (-0.4)	449 (0.4)	439 (-0.9)	438 (-3.5)	445 (-0.7)	433 (-6.7)	435 (-3.3)	443 (0.5)
		SOC·서비스	4,630 (0.1)	4,597 (-0.7)	4,604 (-1.5)	4,506 (-2.4)	4,636 (1.4)	4,636 (0.8)	4,639 (0.4)	4,617 (0.2)	4,651 (2.0)	4,628 (0.7)
	인천	농림·어업	15 (150.0)	14 (-6.7)	12 (-29.4)	9 (-25.0)	12 (-20.0)	11 (-31.3)	12 (-14.3)	12 (-25.0)	9 (-50.0)	7 (-56.3)
		제조업	328 (-7.1)	324 (-1.2)	322 (-0.3)	311 (-3.7)	303 (-7.9)	314 (-3.1)	317 (-1.9)	314 (-4.3)	311 (-2.8)	312 (-3.7)
		SOC·서비스	1,238 (1.8)	1,221 (-1.4)	1,221 (-2.2)	1,211 (-0.6)	1,260 (3.5)	1,249 (1.6)	1,236 (0.2)	1,251 (1.6)	1,260 (2.9)	1,259 (3.3)
	경기	농림·어업	118 (5.4)	107 (-9.3)	98 (-16.2)	69 (-21.6)	122 (-2.4)	124 (5.1)	127 (5.8)	127 (11.4)	119 (0.0)	130 (6.6)
		제조업	1,259 (-4.7)	1,283 (1.9)	1,309 (1.8)	1,362 (5.8)	1,355 (7.1)	1,315 (3.5)	1,335 (6.3)	1,301 (2.6)	1,309 (1.6)	1,322 (1.5)
		SOC·서비스	5,575 (4.1)	5,519 (-1.0)	5,500 (-2.5)	5,419 (-2.1)	5,677 (2.8)	5,816 (5.5)	5,799 (4.5)	5,810 (5.5)	5,838 (6.3)	5,862 (6.7)
수 출	서울		57,379 (-11.2)	53,332 (-7.1)	15,303 (5.9)	16,333 (18.7)	17,736 (72.9)	17,127 (22.2)	5,735 (25.4)	5,544 (30.2)	5,848 (12.9)	5,754 (19.4)
	인천		38,018 (-6.8)	37,701 (-0.8)	9,947 (1.1)	10,057 (-1.0)	10,731 (27.7)	11,943 (29.9)	3,712 (26.6)	4,052 (45.9)	4,179 (20.0)	4,345 (42.9)
	경기		116,686 (-18.6)	115,157 (-1.3)	31,098 (6.7)	31,166 (15.6)	34,256 (27.2)	35,316 (17.1)	12,011 (19.7)	11,386 (24.7)	11,919 (8.5)	11,633 (15.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2) 충청권

- 대전: 생산 감소(-0.7%), 고용 증가(0.6%), 수출 감소(-13.9%)
 - 주요 업종인 담배 제조업(-2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9.2%)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세
 - 제조업(-13.9%)이 감소세이나, 농림·어업(25.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5%)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51.2%), 종이제품(40.2%)을 제외한, 원동기 및 펌프(-24.4%), 자동차 부품(-41.8%), 기호식품(-48.0%) 등 감소로 지역 수출 감소세
- 세종: 생산 증가(13.6%), 고용 증가(2.2%), 수출 증가(29.6%)
 - 광업·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3.6% 증가하여 증가세 지속
 - 농림·어업(22.2%), 제조업(4.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0%)의 전 부문에서 증가하여 전체 고용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기구부품(54.0%), 정밀화학원료(125.4%), 합성수지(36.1%)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 충북: 생산 증가(12.1%), 고용 증가(3.5%), 수출 증가(4.2%)
 - 지역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9.2%) 증가세와 함께 식료품 제조업(8.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0.2%) 등이 증가 전환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폭 확대
 - 농림·어업(9.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9%)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15.7%), 정밀화학원료(53.2%) 등은 증가세이나, 건전지 및 축전지(-26.6%), 농약 및 의약품(-63.0%)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증가폭 축소
- 충남: 생산 감소(-5.1%), 고용 증가(1.6%), 수출 증가(26.5%)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6%)의 증가폭 축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5.4%)의 감소폭이 확대되며 전체 생산 감소세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6%)은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8.9%), 제조업(2.4%)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중간	대전	담배 제조업	7.4	11.7	27.6	9.6	12.4	-26.0	-23.5	-22.4	-31.7	-21.6
		기계 및 장비	18.5	-23.6	-15.3	17.3	25.6	16.8	10.5	30.8	13.0	11.3
		화학제품 외	32.8	-4.7	4.9	14.7	-11.8	-22.2	-25.9	-33.8	-6.3	-9.2
	세종	총지수	2.1	7.1	10.2	8.8	14.8	12.9	11.6	15.3	11.7	13.6
	세종	전자부품 외	3.8	-14.2	-1.9	9.4	31.1	46.9	37.6	45.4	57.1	39.2
		식료품	13.3	5.3	4.7	4.6	6.2	2.3	2.3	6.1	-1.0	8.6
		화학제품 외	1.2	3.3	27.5	30.4	56.7	5.9	38.6	19.5	-29.3	0.2
	세종	전자부품 외	-9.8	-9.5	5.7	-23.1	-10.0	-12.6	-7.4	-12.0	-17.5	-25.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	-0.4	-7.6	5.8	5.3	-22.4	-24.8	-12.3	-28.2	1.9
		화학제품 외	-3.0	-1.4	-3.5	4.4	12.9	19.3	18.2	23.7	15.9	3.6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14.3)	8 (0.0)	7 (-30.0)	7 (-22.2)	8 (-11.1)	8 (14.3)	8 (14.3)	8 (14.3)	9 (12.5)	10 (25.0)
		제조업	102 (21.4)	105 (2.9)	100 (-8.3)	94 (-14.5)	93 (-12.3)	91 (-11.7)	90 (-10.9)	92 (-12.4)	92 (-10.7)	87 (-13.9)
		SOC·서비스	661 (-1.0)	667 (0.9)	680 (2.3)	656 (0.0)	685 (4.1)	697 (3.6)	695 (3.6)	700 (3.7)	696 (3.3)	697 (2.5)
	세종	농림·어업	8 (14.3)	8 (0.0)	7 (0.0)	6 (20.0)	11 (22.2)	11 (22.2)	10 (11.1)	11 (22.2)	11 (22.2)	11 (22.2)
		제조업	24 (0.0)	24 (0.0)	24 (4.3)	25 (4.2)	23 (0.0)	24 (0.0)	23 (-4.2)	24 (0.0)	25 (8.7)	24 (4.3)
		SOC·서비스	136 (16.2)	148 (8.8)	151 (5.6)	150 (4.9)	155 (4.7)	154 (0.7)	155 (2.0)	154 (0.7)	155 (0.6)	154 (2.0)
	세종	농림·어업	89 (-1.1)	93 (4.5)	88 (-2.2)	79 (-3.7)	101 (0.0)	104 (3.0)	101 (-1.9)	103 (4.0)	107 (7.0)	107 (9.2)
		제조업	190 (4.4)	201 (5.8)	209 (10.0)	216 (11.9)	213 (8.7)	207 (1.0)	207 (4.0)	207 (1.0)	208 (-1.0)	207 (-0.5)
		SOC·서비스	601 (0.0)	596 (-0.8)	589 (-2.5)	563 (-5.2)	592 (-2.1)	599 (0.5)	597 (-1.5)	603 (1.7)	596 (1.2)	606 (3.9)
	세종	농림·어업	143 (2.1)	162 (13.3)	168 (9.1)	126 (3.3)	197 (9.4)	206 (15.1)	206 (15.7)	205 (17.8)	206 (10.8)	208 (8.9)
		제조업	270 (0.0)	250 (-7.4)	252 (-5.6)	255 (-2.3)	259 (4.0)	250 (5.0)	252 (5.9)	252 (5.9)	247 (4.2)	255 (2.4)
		SOC·서비스	783 (1.8)	764 (-2.4)	762 (-2.4)	735 (-1.3)	760 (-0.1)	775 (-1.9)	772 (-2.6)	770 (-3.0)	782 (0.0)	776 (-0.6)
수출	대전		4,048 (-10.3)	5,018 (24.0)	1,366 (28.6)	1,280 (3.3)	1,174 (12.6)	1,241 (-9.4)	414 (-10.9)	421 (3.2)	406 (-18.3)	403 (-13.9)
	세종		1,285 (4.5)	1,300 (1.2)	372 (4.1)	362 (13.4)	361 (31.1)	388 (16.4)	132 (12.8)	117 (7.1)	139 (29.8)	144 (29.6)
	충북		22,080 (-5.0)	24,870 (12.6)	7,134 (27.7)	7,214 (24.1)	6,709 (19.2)	7,585 (20.5)	2,608 (29.9)	2,420 (21.7)	2,557 (11.2)	2,236 (4.2)
	충남		79,951 (-13.1)	79,572 (-0.5)	22,475 (10.4)	22,046 (12.9)	24,715 (42.4)	28,118 (39.1)	8,701 (46.5)	9,396 (42.7)	10,020 (30.3)	8,982 (26.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주력 수출품 중 반도체(19.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4.0%), 컴퓨터(72.4%), 석유제품(114.8%)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3) 호남권

- 광주: 생산 감소(-4.3%), 고용 소폭 증가(0.1%), 수출 소폭 증가(0.1%)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9.8%), 기타 기계 및 장비(-1.1%) 등 생산이 감소하며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8%)의 증가로, 농림·어업(-23.5%), 제조업(-5.7%)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37.1%)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31.1%), 냉장고(-1.2%) 등은 여전히 감소세로 전체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침.
- 전북: 생산 증가(4.8%), 고용 증가(1.7%), 수출 증가(38.0%)
 - 자동차 및 트레일러(6.6%), 식품품 제조업(3.2%) 등의 생산이 증가 전환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7.0%)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7.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4%) 부문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합성수지(56.7%), 자동차(110.8%), 농약 및 의약품(189.8%), 동제품(20.0%) 등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 전남: 생산 증가(11.0%), 고용 증가(2.9%), 수출 증가(89.3%)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6.4%), 1차 금속 제조업(1.8%), 석유정제품(28.4%) 등의 동반 상승으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4.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8%)의 증가로 제조업(-6.7%)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석유제품(164.3%), 합성수지(61.2%), 철강판(122.8%), 기초유분(334.5%)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 산	광 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0.4	1.2	5.6	27.0	-14.9	-12.7	4.4	-30.7	-19.8
		전기장비	1.0	8.7	15.5	27.1	41.7	-2.3	14.7	-7.0	-12.9	10.8
		기계 및 장비	8.0	-11.2	-6.6	-7.1	27.4	-9.0	-23.4	1.0	4.1	-1.1
	전 북	자동차 및 트레일러	-8.9	-14.3	-12.8	11.5	6.4	-0.6	-2.4	14.2	-9.5	6.6
		화학제품 외	-11.0	-11.1	-6.9	-3.2	26.6	-5.1	3.1	-0.1	-17.2	-8.3
		식료품 제조업	5.6	-0.6	-5.0	-1.7	0.0	-3.3	-5.0	3.0	-7.3	3.2
	전 남	화학제품 외	2.2	-2.8	-11.7	3.3	13.4	12.8	10.3	17.2	10.8	16.4
		1차 금속 제조업	-0.9	-8.1	-3.0	3.7	24.2	6.4	11.7	3.0	5.1	1.8
		석유정제품	-2.9	-3.7	-9.1	0.6	14.6	20.7	17.9	24.4	19.7	28.4
고 용	광 주	농림·어업	13 (30.0)	16 (23.1)	15 (-16.7)	12 (-25.0)	13 (-18.8)	12 (-25.0)	12 (-25.0)	11 (-31.3)	12 (-20.0)	13 (-23.5)
		제조업	110 (-0.9)	107 (-2.7)	105 (-4.5)	103 (-5.5)	100 (-6.5)	96 (-10.3)	98 (-9.3)	93 (-13.1)	96 (-10.3)	100 (-5.7)
		SOC·서비스	626 (-0.2)	625 (-0.2)	628 (-0.5)	620 (-0.2)	639 (2.6)	644 (2.9)	644 (2.9)	647 (3.7)	640 (1.7)	638 (1.8)
	전 북	농림·어업	168 (7.0)	179 (6.5)	176 (2.3)	160 (1.3)	179 (-5.3)	172 (-9.9)	173 (-10.8)	170 (-10.5)	174 (-7.9)	174 (-7.0)
		제조업	123 (0.0)	123 (0.0)	119 (-3.3)	122 (-3.2)	118 (-6.3)	116 (-3.3)	113 (-8.1)	115 (-3.4)	120 (1.7)	123 (7.0)
		SOC·서비스	635 (0.0)	630 (-0.8)	650 (1.9)	638 (2.7)	664 (8.3)	681 (7.4)	683 (8.8)	684 (8.2)	676 (5.1)	675 (3.4)
	전 남	농림·어업	191 (-2.6)	205 (7.3)	218 (19.8)	205 (14.5)	221 (6.3)	229 (6.5)	226 (4.6)	227 (5.6)	232 (7.9)	234 (4.9)
		제조업	104 (1.0)	106 (1.9)	101 (-3.8)	94 (-10.5)	97 (-10.2)	98 (-12.5)	97 (-14.9)	99 (-12.4)	98 (-10.1)	97 (-6.7)
		SOC·서비스	678 (2.4)	662 (-2.4)	657 (-6.4)	648 (-4.3)	677 (2.4)	674 (3.1)	669 (2.5)	673 (2.9)	680 (3.5)	685 (3.8)
수 출	광주	13,415 (-8.5)	13,772 (2.7)	3,820 (17.0)	3,918 (17.7)	4,066 (49.3)	3,820 (-2.0)	1,401 (6.2)	1,206 (4.0)	1,213 (-14.7)	1,328 (0.1)	
	전북	6,537 (-16.5)	5,842 (-10.6)	1,621 (2.7)	1,758 (18.1)	2,002 (59.5)	1,966 (33.1)	696 (44.6)	632 (50.2)	637 (10.9)	701 (38.0)	
	전남	32,587 (-11.0)	27,092 (-16.9)	7,092 (-10.6)	8,987 (22.3)	10,127 (84.3)	11,569 (61.7)	3,986 (61.8)	3,916 (54.5)	3,668 (70.1)	4,164 (89.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4) 대경권

- 대구: 생산 감소(-0.8%), 고용 증가(2.3%), 수출 증가(15.1%)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0.1%)는 감소세이나, 금속가공제품(3.0%), 기타 기계 및 장비(19.1%) 등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감소폭 축소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 산	대 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	-13.8	4.2	12.1	57.5	4.9	13.8	19.6	-13.8	-10.1
		금속가공제품	-1.5	-13.4	-16.3	-10.5	28.1	8.1	17.0	15.0	-5.6	3.0
		기계 및 장비	10.2	-16.9	-21.7	0.8	27.1	17.0	23.5	19.8	6.7	19.1
	경 북	전자부품 외	-7.2	-11.4	-23.7	14.1	4.2	-9.2	6.9	-27.8	-3.1	23.3
		1차 금속	-7.8	-2.8	4.2	-1.5	8.3	1.3	5.8	4.1	-5.6	-1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7.0	6.4	12.9	33.8	-0.8	9.2	11.6	-19.3	-12.3
고 용	대 구	농림·어업	33 (10.0)	31 (-6.1)	27 (-22.9)	21 (-36.4)	16 (-51.5)	11 (-64.5)	13 (-59.4)	10 (-67.7)	11 (-62.1)	12 (-55.6)
		제조업	249 (-1.6)	231 (-7.2)	231 (-8.0)	236 (0.0)	246 (7.4)	241 (6.2)	243 (7.0)	241 (6.2)	239 (5.8)	231 (0.9)
		SOC·서비스	936 (-0.6)	923 (-1.4)	948 (1.7)	927 (3.0)	967 (7.3)	979 (3.9)	979 (4.8)	975 (3.4)	983 (3.5)	990 (4.4)
	경 북	농림·어업	251 (6.8)	262 (4.4)	283 (16.0)	248 (13.8)	285 (9.2)	293 (1.7)	292 (2.8)	293 (1.4)	293 (0.7)	295 (1.4)
		제조업	299 (5.3)	292 (-2.3)	277 (-11.8)	278 (-9.2)	277 (-6.7)	281 (-2.1)	279 (-3.5)	280 (-3.1)	284 (0.0)	288 (1.4)
		SOC·서비스	879 (-3.0)	863 (-1.8)	862 (-3.1)	830 (-4.7)	854 (0.0)	864 (-0.1)	866 (-0.6)	858 (-0.5)	870 (0.9)	866 (0.5)
수 출	대구		7,491 (-7.6)	6,265 (-16.4)	1,775 (-7.8)	1,858 (5.7)	1,954 (65.1)	1,914 (23.6)	704 (30.9)	576 (31.5)	633 (10.7)	659 (15.1)
	경북		37,712 (-7.8)	37,096 (-1.6)	11,005 (11.3)	10,311 (14.3)	10,320 (31.9)	11,117 (20.3)	3,518 (11.5)	3,764 (36.9)	3,835 (14.9)	3,946 (8.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농림·어업(-55.6%)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0.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4%)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전통적인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정밀화학원료(333.2%), 농기계(43.5%), 인조장 섬유직물(87.2%) 등 증가로 자동차부품(-13.4%) 등의 감소에도 전체 수출 증가세
- 경북: 생산 증가(0.5%), 고용 증가(0.8%), 수출 증가(8.9%)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3.3%)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1.4%), 제조업(1.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5%)의 전 부문 증가로 전년동월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28.5%), 반도체(2.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7.8%) 등의 증가로, 철강판(-1.6%), 광학기기(-4.7%) 등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출 증가세

(5) 동남권

- 부산: 생산 증가(7.7%), 고용 증가(0.8%), 수출 증가(49.6%)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22.6%), 자동차 및 트레일러(44.4%), 1차 금속 제조업(6.8%) 등이 동반 증가하며 전체 생산 증가 전환
 - 제조업(-8.4%)은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50.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2%)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철강판(94.9%), 자동차(1,723.4%), 철강관 및 철강선(18.5%)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 울산: 생산 감소(-5.6%), 고용 증가(0.7%), 수출 증가(38.2%)
 - 대표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4.1%) 등 감소세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3.1%)의 증가세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 견인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3.8%), 석유제품(134.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96.2%), 합성수지(77.2%) 등 품목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 산	부 산	기계 및 장비	6.4	-3.6	-23.1	-17.3	-8.4	5.9	6.8	-7.9	18.0	22.6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0	-19.2	-26.5	-11.1	14.2	1.5	0.4	7.2	-2.4	44.4
		1차 금속 제조업	-0.2	-7.7	-11.3	-9.9	-5.3	4.3	0.4	12.1	1.6	6.8
	울 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9.8	-1.2	20.1	22.0	-7.6	-5.5	18.1	-25.8	-14.1
		화학제품 외	0.3	-2.8	-0.2	2.1	8.7	9.7	11.8	8.8	8.7	0.5
		석유정제품	-3.1	-6.1	-7.6	-12.4	-4.5	0.0	-2.5	0.5	2.5	4.8
	경 남	기타 운송장비	42.0	-12.9	-27.6	-33.9	-24.6	-20.1	-23.3	-15.3	-20.9	-3.3
		기계 및 장비	-6.9	-9.8	-2.0	-1.2	15.0	10.7	6.9	30.4	-0.6	13.6
		금속가공제품	-16.0	-1.7	-1.8	-6.2	-9.7	-8.1	-12.6	0.2	-10.0	-11.9
고 용	부 산	농림·어업	7 (-30.0)	7 (0.0)	8 (0.0)	8 (0.0)	10 (42.9)	12 (71.4)	13 (85.7)	12 (71.4)	11 (57.1)	12 (50.0)
		제조업	284 (-0.7)	255 (-10.2)	250 (-5.3)	252 (-3.4)	244 (-5.4)	237 (-5.6)	238 (-6.7)	239 (-4.4)	234 (-5.3)	229 (-8.4)
		SOC·서비스	1,385 (1.8)	1,378 (-0.5)	1,391 (-2.2)	1,358 (-1.8)	1,417 (4.9)	1,433 (3.4)	1,435 (4.1)	1,440 (3.7)	1,424 (2.4)	1,423 (2.2)
	울 산	농림·어업	6 (0.0)	7 (16.7)	7 (0.0)	6 (-14.3)	6 (-14.3)	7 (0.0)	7 (0.0)	8 (33.3)	8 (14.3)	6 (-14.3)
		제조업	176 (-4.9)	162 (-8.0)	160 (-5.9)	166 (-1.2)	162 (1.3)	163 (2.5)	161 (0.0)	164 (3.8)	162 (2.5)	164 (3.1)
		SOC·서비스	389 (1.6)	392 (0.8)	392 (-2.0)	377 (-3.3)	384 (-1.3)	389 (-2.0)	386 (-2.3)	386 (-2.8)	393 (-1.8)	394 (0.0)
	경 남	농림·어업	178 (-2.7)	184 (3.4)	181 (0.6)	173 (-1.7)	207 (8.4)	225 (19.7)	220 (15.2)	228 (21.3)	226 (22.2)	227 (16.4)
		제조업	396 (-5.3)	399 (0.8)	382 (-5.7)	381 (-7.1)	380 (-6.6)	370 (-7.0)	376 (-7.2)	365 (-9.4)	370 (-4.1)	368 (-1.1)
		SOC·서비스	1,173 (2.5)	1,145 (-2.4)	1,159 (-1.4)	1,128 (-1.1)	1,175 (4.3)	1,164 (1.0)	1,168 (1.7)	1,161 (0.7)	1,164 (0.5)	1,160 (-0.7)
수 출	부산		13,924 (-3.4)	11,320 (-18.7)	3,028 (-16.2)	3,327 (8.7)	3,917 (59.5)	3,824 (37.8)	1,302 (36.3)	1,194 (47.6)	1,328 (31.4)	1,316 (49.6)
	울산		69,530 (-0.9)	56,091 (-19.3)	15,083 (-13.1)	16,520 (5.4)	18,732 (65.7)	18,377 (31.0)	6,712 (45.6)	5,599 (42.4)	6,066 (10.6)	6,536 (38.2)
	경남		39,353 (-2.2)	35,893 (-8.8)	10,139 (7.6)	10,792 (5.6)	9,261 (20.1)	9,393 (20.0)	3,531 (17.0)	2,751 (37.3)	3,111 (10.8)	3,193 (4.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경남: 생산 증가(0.7%), 고용 증가(1.2%), 수출 증가(4.0%)
 - 주요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3.3%)의 감소폭 축소와 기타 기계 및 장비(13.6%) 등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전환
 - 제조업(-1.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 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16.4%)이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0.4%), 냉장고(89.9%) 등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지역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4.3%)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 축소

(6) 강원·제주권

- 강원: 생산 감소(-1.0%), 고용 증가(2.9%), 수출 증가(49.3%)
 - 대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10.0%), 음료 제조업(-12.9%) 등 생산이 감소세이나 식료품 제조업(9.8%)이 증가 전환하며 지역 전체 생산 감소폭 축소
 - 농림·어업(-7.9%)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3.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0%)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전자응용기기(59.3%), 전력용 기기(1,642.6%), 합금철선철 및 고철(302.5%) 등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 제주: 생산 증가(2.5%), 고용 증가(1.3%), 수출 증가(56.6%)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11.7%), 비금속 광물제품(-14.7%)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식료품 제조업(1.1%) 등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14.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2%)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전환
 - 지역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87.8%) 및 어류(43.6%), 기호식품(165.5%)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 산	강 원	비금속 광물제품	-4.7	-4.6	-2.4	-4.2	-4.8	4.3	3.3	22.8	-9.7	-10.0
		식료품	5.1	-2.0	3.6	2.3	0.3	-8.0	-2.8	11.9	-26.3	9.8
		음료	7.9	-4.2	-14.9	-5.6	-12.0	-8.8	-7.5	-5.9	-13.5	-12.9
	제 주	음료	5.4	-0.7	33.2	23.4	-12.6	4.0	3.2	17.8	-9.8	-11.7
		식료품	-6.3	-2.5	-5.8	-15.1	-1.4	-8.7	-16.8	7.5	-13.8	1.1
		비금속 광물제품	-12.8	-28.8	-17.0	-6.8	66.6	-16.2	-21.9	-19.2	-6.3	-14.7
고 용	강 원	농림·어업	92 (5.7)	82 (-10.9)	67 (-25.6)	46 (-27.0)	75 (-27.2)	82 (-14.6)	83 (-17.0)	82 (-14.6)	81 (-12.9)	82 (-7.9)
		제조업	56 (7.7)	57 (1.8)	54 (-10.0)	55 (-11.3)	54 (-3.6)	55 (0.0)	54 (-3.6)	55 (-1.8)	56 (1.8)	55 (3.8)
		SOC·서비스	658 (2.3)	649 (-1.4)	658 (0.3)	636 (0.5)	697 (7.6)	697 (5.8)	701 (7.2)	696 (4.8)	692 (5.0)	696 (4.0)
	제 주	농림·어업	67 (13.6)	74 (10.4)	75 (5.6)	71 (-4.1)	68 (-9.3)	62 (-15.1)	64 (-12.3)	62 (-12.7)	61 (-16.4)	65 (-14.5)
		제조업	12 (0.0)	12 (0.0)	14 (16.7)	13 (8.3)	14 (27.3)	15 (25.0)	16 (33.3)	15 (25.0)	15 (7.1)	16 (14.3)
		SOC·서비스	303 (0.7)	292 (-3.6)	295 (-3.6)	292 (-0.7)	306 (7.7)	302 (3.1)	299 (2.7)	304 (2.7)	303 (3.1)	305 (5.2)
수 출	강원	2,088 (-0.4)	2,023 (-3.1)	592 (11.0)	631 (34.7)	658 (47.5)	720 (39.4)	251 (46.6)	218 (41.1)	251 (31.5)	261 (49.3)	
	제주	149 (-18.3)	155 (4.0)	54 (13.4)	45 (16.9)	59 (92.7)	57 (80.5)	19 (145.2)	20 (82.8)	19 (41.2)	19 (56.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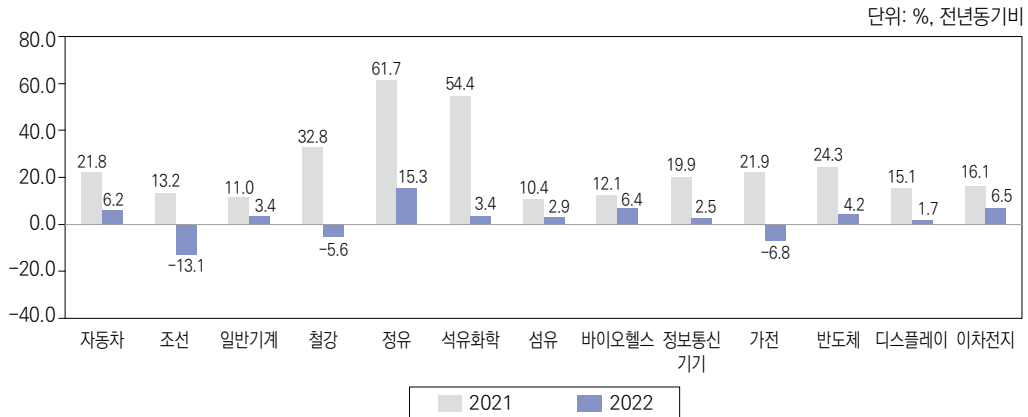


2022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²⁾

- 수출은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 전망
-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 코로나19 변이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폭은 전년(25.6%) 대비 둔화 전망
 - 13대 주력산업 수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 확대 전망
 - * 13대 주력산업 수출액: (2019년) 4,264억 달러 → (2022년) 5,115억 달러
 - * 13대 주력산업 수출 비중: (2019년) 78.6% → (2020년) 76.9% → (2021년) 78.6% → (2022년) 80.2%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성장세가 지속되나 조선은 수주 부족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2.2% 소폭 증가 전망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의 「i-KIET 산업경제이슈」 125호 “2022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참고.

2022년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전망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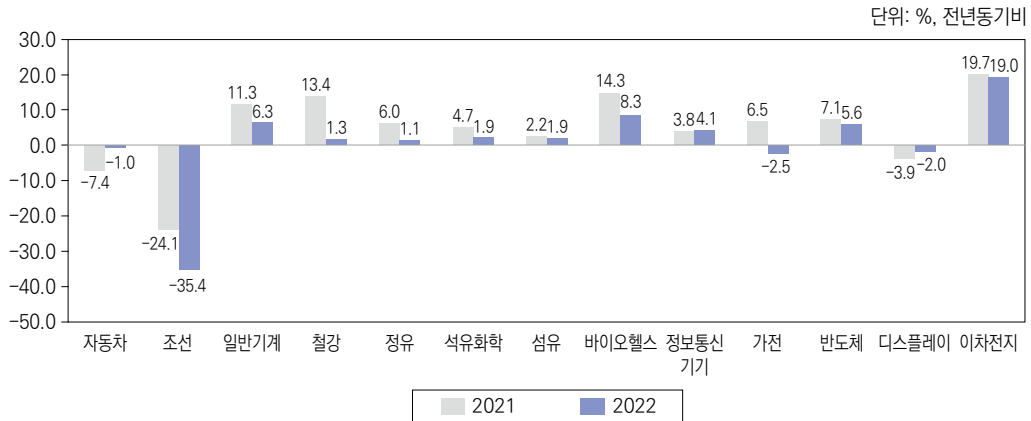
- 자동차는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및 전동차와 고급 브랜드 차량 등 수출단가 상승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부품 공급망 불안정 지속 우려로 증가폭은 6.2% 둔화 전망
- 조선 수출물량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수주절벽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1% 감소 전망
- 일반기계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대응, 그린뉴딜 등 적극적 인프라 경기 부양 정책 지속과 수요산업 호조로 전년에 이어 증가세가 유지되나, 중국 건설투자 규제 요인으로 3.4%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요 증대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로 전년(41.2%) 대비 4.6% 증가하여 증가폭 크게 축소
 - 철강은 글로벌 수요 증가와 기저효과로 수출물량은 증가(4.1%)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단가 조정으로 수출액은 5.6% 감소 전망
 - 정유는 석유제품의 수요 확대와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체수요 확대 지속의 영향으로 15.3%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확대, 국내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능력 증가로 수출물량과 수출액 각각 2.4%, 3.4% 증가 전망
 - 섬유는 글로벌 경기 성장세 지속에 따른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산업용 섬유 수요의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2.9% 증가 전망

-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 백신 수주 증가, 주요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의료기기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6.4% 증가 전망
- (IT산업군) 가전을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3.3% 증가가 예상되나, 전년(22.1%) 대비 증가폭은 크게 감소
 - 정보통신기기는 2021년에 이어 SSD, 휴대폰부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나 반도체부품 수급 부족 영향,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 전망
 - 가전은 주요 수출국의 경기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특수 종료와 국내업체의 해외 생산 공장 정상화에 따른 국내 생산물량 감소로 6.8% 감소 전망
 - 반도체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 생산능력 확대에 전년 대비 4.2%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신 전망
 - 디스플레이는 LCD 감소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되겠지만, OLED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 전망
 - 이차전지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수요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세 유지

□ 내수는 대부분의 산업이 증가세를 유지하나 제한적 성장세 전망

- 수송기기(자동차,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설비 확대에 증가세가 예상되나, 자동차와 조선은 수요 부족과 발주 감소로 감소세 지속
 - 조선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국내 선사의 발주가 크게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35.4%) 전망
- (소재산업군) 전방산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전망되나, 전년 내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미미
 -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각각 1.3%, 1.1%, 1.9%, 1.9% 소폭 증가 전망

2022년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IT산업군) 가전,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가 IT산업군 전체 내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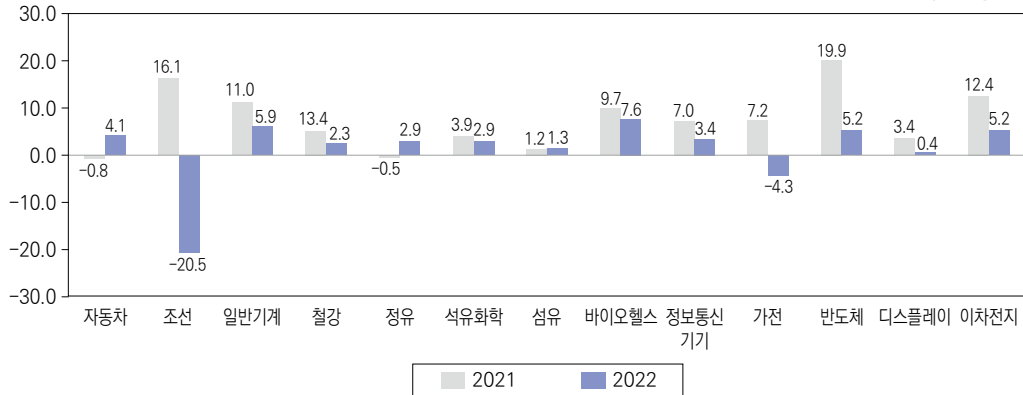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기는 반도체 부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5G 시장 확대,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로 4.1% 증가 전망
- 이차전지 내수는 국내 전기차 출시 확대에 전년(19.7%)에 이어 큰 폭의 증가율(19.0%) 기록 전망

□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성장세 지속으로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나, 증가폭은 다소 둔화 전망

- 코로나19로 건조물량이 감소한 조선산업과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및 내수 확대에 생산 증가세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와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가 예상되나, 조선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주절벽으로 큰 폭의 감소 전망
 - 자동차산업은 2022년에도 내수 감소와 반도체 공급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와 신차 출시로 전년 대비 4.1% 증가 전망
 - 조선은 고부가·고기술 선박인 LNG운반선과 화학제품 운반선의 인도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수주 부족에 따른 건조 척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20.5% 큰 폭의 감소 전망

2022년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소재산업군) 내수와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증가 전망
 -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모두 내수와 수출 동반 확대로 전년 대비 각기 2.3%, 2.9%, 2.9%, 1.3% 증가 전망
 - 바이오헬스는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위탁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진단키트 수요는 감소하여 전년 대비 7.6% 증가 예상
- (IT산업군) 가전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감소하지만,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기업용 SSD 수요와 5G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교체수요 증대로 3.4% 증가 전망
 - 가전 생산은 수출과 내수 모두 감소하고 해외 생산 정상화에 따른 국내 생산물량 축소로 전년 대비 4.3% 감소 예상
 - 반도체 생산은 지속적인 국내외 수요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 전망